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돌봄
공백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에 대한 **여론조사**

2021.11



서울시의회

2021년 서울시의회 연구과제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 돌봄 공백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분석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목 차

I. 개 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2. 설문조사 개요	1
II. 조사표 구성 및 분석방법	2
1.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자녀와 관련 변화사항	2
2.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모와 관련 변화사항	2
3. 코로나19에 따른 걱정과 양육 스트레스	2
4. 질 높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기관 수요조사	3
5. 설문분석 방법	3
III. 아동 보육 및 돌봄 관련 설문조사 결과	3
1. 조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3
가. 코로나19에 따른 자녀와 관련 변화사항	4
나. 코로나19에 따른 부모와 관련 변화사항	9
2.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돌봄에 대한 환경 변화	3
가. 자녀 인원수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	15
나. 자녀 나이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	17
다. 자녀 인원수에 따른 보육 및 돌봄 기관 변화	19
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긴급보육·돌봄 이용 실적	25
마.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려움	27
바.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	30

사. 부모 근로유형에 따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	32
3.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걱정(원인) 분석 결과	38
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의 외부 활동(학원 등) 통제	38
나.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의 외부 접촉(친구 등) 통제	41
다. 코로나19로 집 안에 외부인 통제	44
4. 코로나 19 상황으로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47
가. 보육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육체적 스트레스	47
나. 자녀 보육 및 돌봄으로 부모의 개인시간 부족	52
다. 자녀 보육 및 돌봄으로 부모의 직장생활 분석	57
라. 자녀 보육 및 돌봄으로 인한 부모 개인 생활 분석	62
마.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정보 분석	67
바.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비용 분석	72
5. 질 높은 유치원, 키움센터 등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77
가.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기관에 대한 물리적 환경 수요	77
나.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기관에 대한 인간적 환경 수요	78
다.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수요	79
라.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기관에 대한 조직 환경 수요	80
IV. 결 론	81
<설문지>	84

[표 목차]

<표 2-1> 자녀 관련 설문조사 내용	2
<표 2-2> 부모 관련 설문조사 내용	2
<표 2-3> 부모의 걱정수준 및 양육 스트레스 관련 내용	2
<표 2-4> 보육 및 아동 돌봄 시설 등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3
<표 3-1> 설문조사 인원에 대한 자녀 수 조사결과	4
<표 3-2> 설문조사 인원에 대한 자녀 연령대 현황	4
<표 3-3> 특별 양육·보육 필요성 및 도움이 필요한 유형	5
<표 3-4>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가 이용하던 기관	5
<표 3-5> 코로나19 발생 후 이용기관의 변화	6
<표 3-6>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발령시 이용기관 횟수	6
<표 3-7> 긴급보육·돌봄 기간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	7
<표 3-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어려움 유·무 및 유형	8
<표 3-9> 설문조사 대상의 자녀와의 관계	9
<표 3-10> 설문 인원의 취업 여부 및 배우자의 취업 상태	9
<표 3-11> 설문 대상자의 근로 유형	10
<표 3-12> 설문 대상 가정의 전체 경제적 수준	11
<표 3-13> 가정생활 변화 여부 및 변화 중 가장 큰 어려움	12
<표 3-1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낮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	13
<표 3-15>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유·무	14
<표 3-16>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된 요인	14
<표 3-17> 자녀 인원수에 따른 가정생활 변화	15
<표 3-18> 가정생활 변화 중 가장 어려운 점	16
<표 3-19> 자녀 나이에 따라 가정생활 변화 여부 조사 결과	17
<표 3-20> 자녀 나이에 따라 가장 어려운 점 조사 결과	18
<표 3-21>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곳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19

<표 3-22> 자녀 인원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 보육기관 조사결과	20
<표 3-23>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의 양육 기관 조사 결과	21
<표 3-24>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의 이용기관 변화	21
<표 3-25>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의 기관 이용 평균 횟수	22
<표 3-26> 자녀 인원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 보육기관 조사결과	23
<표 3-27>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	24
<표 3-28> 긴급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조사결과	25
<표 3-29> 긴급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조사결과	26
<표 3-30> 부모 취업 유형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 조사결과	27
<표 3-31>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 양육 조사결과	28
<표 3-32>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 양육 조사결과	29
<표 3-33>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 등의 신뢰도 조사결과	30
<표 3-34> 코로나19 극복하거나 적응에 가장 도움 요인 조사결과	31
<표 3-35>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 가장 어려운 점 조사결과	32
<표 3-36>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기관(사람) 조사결과	34
<표 3-37>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의 조사결과	36
<표 3-38> 코로나 19에 따라 자녀의 외부활동 제한여부 조사결과	38
<표 3-39>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 조사 결과	39
<표 3-40>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 조사 결과	40
<표 3-41>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아이의 외부 사람(친구, 학습지 교사 등) 제한 여부	41
<표 3-42>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아이의 외부 사람(친구, 학습지 교사 등) 제한 여부	42
<표 3-43>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아이의 외부 사람(친구, 학습지 교사 등) 제한 여부	43
<표 3-44>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 조사 결과	44
<표 3-45>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 조사 결과	45
<표 3-46>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 조사 결과	46
<표 3-47> 자녀 인원 수에 따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 조사 결과	47
<표 3-48> 부모 취업상태에 따른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 조사 결과	48

<표 3-49> 부모 근로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 조사 결과	49
<표 3-50> 부모 경제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 조사 결과	50
<표 3-51>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 조사 결과	52
<표 3-52>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 조사 결과	53
<표 3-53>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 조사 결과	54
<표 3-54>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 조사 결과	55
<표 3-55>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출근 여건 조사 결과	57
<표 3-56>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모의 출근 여건 조사 결과	58
<표 3-57>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출근 여건 조사 결과	59
<표 3-58>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의 출근 여건 조사 결과	60
<표 3-59>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 수준 조사 결과	62
<표 3-60>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의 개인생활 포기 관련 조사 결과	63
<표 3-61>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개인생활 포기 관련 조사 결과	64
<표 3-62>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개인생활 포기 관련 조사 결과	65
<표 3-63> 자녀의 인원수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정보 조사 결과	67
<표 3-64> 부모의 취업 상태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정보 조사 결과	68
<표 3-65>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정보 조사 결과	69
<표 3-66>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정보 조사 결과	70
<표 3-67> 자녀 인원수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비용 조사 결과	72
<표 3-68>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비용 조사 결과	73
<표 3-69>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비용 조사 결과	74
<표 3-70>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비용 조사 결과	75
<표 3-71>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기관의 물리적 환경 수요조사 분석 결과	77
<표 3-72>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기관의 인간적 환경 수요조사 분석 결과	78
<표 3-73>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기관의 프로그램 수요조사 분석 결과	79
<표 3-74>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기관의 조직환경 수요조사 분석 결과	80

< 요약 >

본 조사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서울시민의 보육 및 아동 돌봄 공백 및 지원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성인 남녀 800명을 방문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2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하여 지원서비스 수요를 분석하였고, 신뢰수준은 95%에서 유효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자녀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다. 설문조사된 800명의 부모 중 1자녀를 둔 부모는 434명(54.3%), 2자녀를 둔 부모는 348명(43.5%), 3자녀를 둔 부모는 18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된 자녀의 연령대는 총 자녀 1,147명 중 만 3세 미만 자녀가 111명(9.7%), 만 3세 자녀가 176명(15.3%), 만 4세 자녀가 190명(16.6%), 만 5세 자녀가 196명(17.1%), 만 6세 자녀가 112명(9.8%), 만 7세 자녀가 95명(8.3%), 만 8세 자녀가 123명(10.7%), 만 9세 자녀가 76명(6.6%), 만 10세 이상 자녀가 68명(5.9%)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자녀가 다니던 기관은 어린이집이 458명(36.3%)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초등학교 262명(20.8%), 학원 260명(20.6%), 유치원 220명(17.5%), 지역아동센터 8명(0.6%), 키움센터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에 대해 이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부모가 432명(54%)이고 이용한 부모가 367명(45.9%)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의 운영 문제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용시간은 4~6시간 미만이 181명(22.6%)으로 제일 높고, 그다음은 6~8시간 미만이 134명(16.8%), 4시간 미만이 28명(3.5%), 8시간 이상이 23명(2.9%)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활동변화를 확인한 결과,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가 246명(3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야외 신체활동 부재로 인한 과잉 행동이 167명(25.1%),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 126명(18.9%), 놀이 자료 및 또래와 소통 결여로 인한 어려움이 121명(18.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학습이 제한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 및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부모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다. 설문조사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직장인이 588명(73.5%)이고 전업 부모가 212명(26.5%)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대상자의 근로유형을 확인한 결과, 풀타임 근로자가 436명(54.5%), 파트타임 근로자 47명(5.9%), 프리랜서가 46명(5.8%), 자영업이 43명(5.4%), 일시적 휴직 상태가 19명(2.4%)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500만 원 이상이 358명(4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400~500만 원이 233명(29.1%), 300~400만 원이 161명(20.1%), 200~300만 원이 43명(5.4%), 200만 원 이하가 5명(0.6%)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발생 이후 가정생활의 변화를 묻는 답변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발생했다’ 고한 부모가 698명(87.3%)이고, ‘변화가 없다’ 는 부모는 102명(12.8%)으로 나타났으며, 변화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 부담 증가가 391명(48.9%), 가사노동 증가가 175명(21.9%), 양육비용 증가가 78명(9.8%), 우울감이 50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에 따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들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우울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보육 및 돌봄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부모들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 낮 시간 자녀를 돌보는 기관 또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요약-1>과 같다.**

<표 요약-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낮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

구 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코로나19 발생 이전	어머니	143	17.9	17.9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578	72.3	90.1
	조부모	75	9.4	99.5
	친인척	1	.1	99.6
	육아 도우미	3	.4	100.0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머니	279	34.9	34.9
	아버지	4	.5	35.4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380	47.5	82.9
	조부모	121	15.1	98.0
	육아 도우미	16	2.0	100.0

<표 요약-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발생에 따라 어머니와 조부모의 양육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코로나19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 기관의 문제점과 코로나19 감염우려에 따른 심리적 두려움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 및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부모들이 기관을 신뢰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거나 적응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배우자와의 공동 육아가 244명(30.5%)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조부모의 지원이 231명(28.9%), 긴급 돌봄은 175명(21.9%)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 이상이 보육 및 돌봄 기관보다는 가족의 양육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돌봄에 대한 환경변화이다. ① 부모의 자녀 인원수에 따라 가정생활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자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생활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1자녀일 경우 가정생활의 변화가 85.9%이고, 2자녀의 경우 88.5%, 3자녀의 경우 94.4%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생활 변화 중 가장 어려운 점은 1자녀의 경우 자녀 양육부담 증가(58.6%)와 가사노동 증가(22.2%)이고, 2자녀의 경우도 자녀 양육부담 증가(53.1%)와 가사노동 증가(28.5%)로 나타났으며, 3자녀의 경우는 자녀 양육부담 증가(47.1%)와 가사노동 증가(23.5%), 양육비용 증가(23.5%)로 나타났다. 특히, 3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 2자녀 보다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자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코로나19 발생 후 자녀를 안심하게 맡길 곳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466명(58.3%)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34명(41.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도 있지만 자녀의 보육 및 돌봄 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돌봄 기관에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방역체계와 부모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③ 코로나19 발생 이후 긴급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이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부모가 432명(54%)이고, 이용한 부모가 368명(46%)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

이상의 부모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보육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들이 왜 긴급보육 및 돌봄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④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자녀 보육 및 양육에 어려움을 확인한 결과, 풀타임 근로자는 양육부담 증가가 226명(60.9%), 가사노동 증가가 86명(23.2%), 양육비용 증가가 39명(10.5%), 우울감이 17명(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양육부담 증가가 25명(59.5%), 가사노동 증가가 10명(23.8%), 우울감이 5명(11.9%), 양육비용 증가가 2명(4.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시적 휴직상태의 부모는 양육부담 증가 8명(42.1%), 가사노동 증가 5명(26.3%), 우울감 3명(15.8%), 양육비용 증가 2명(4.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양육부담 증가가 17명(42.5%), 가사노동 증가가 12명(30.0%), 우울감이 7명(17.5%), 양육비용 증가가 7명(1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양육부담 증가가 23명(57.5%), 양육비용 증가가 9명(22.5%), 가사노동 증가가 6명(15.0%), 우울감이 2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보육 및 돌봄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무료 보육 및 돌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나, 일시적 휴직상태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풀타임 근로자나 자영업 근로자에 비해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있어 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들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에 따라 부모의 걱정(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녀의 외부 활동(유치원, 학원, 놀이터 등)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591명(73.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09명(26.1%)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 및 돌봄 기관까지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아이들의 외부활동 통제로 인하여 자녀의 성장 및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보육 및 돌봄 기관에 대해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며,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코로나19 발생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이다. ① 자녀를 보육 및 양육하는데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보통을 제외하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481명(60.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9명(6.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인원수에 따른 육체적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1자녀의 경우 총 434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55명(58.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2명(7.4%)으로 나타났다. 2자녀의 경우 총 34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4명(61.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4명(4.0%)으로 나타났다. 3자녀의 경우 총 1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2명(66.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명(16.7%)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0만 원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명(60.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0명(0.0%)으로 나타났다. 200~2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0명(69.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명(4.7%)으로 나타났다. 300~3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총 161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07명(66.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명(2.5%)으로 나타났다. 400~4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총 23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44명(61.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3명(5.6%)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총 35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97명(55.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0명(8.4%)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부모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녀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육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육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자녀의 인원수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자녀의 인원 수에 따라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1자녀의 경우 총 434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60명(36.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03명(23.8%)으로 나타났다. 2자녀의 경우 총 34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34명(38.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70명(20.1%)으로 나타났다. 3자녀의 경우 총 1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2명(66.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명(22.2%)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자녀의 경우 1·2자녀에 비해 2배 정도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지원 시 3자녀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부모의 근로 유형에 따라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근로유형별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47.4%), 자영업 근로자(44.2%), 프리랜서 근로자(39.2%), 풀타임 근로자(35.3%), 파트타임 근로자(31.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일시적 휴직상태의 부모나 자영업 근로자들이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지원을 할 때는 재난으로부터 직접 피해 받은 인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기관(유치원, 키움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였다. ①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해 수요조사 결과, 첫 번째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요건 충족이 제일 높게 나왔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재료 및 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순으로 조사되었다. ②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인간적 환경에 대해 수요조사 결과, 첫 번째가 ‘보육 및 돌봄 담당자는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른 담당자나 부모와 협력을 해야 한다’이며, 두 번째는

‘보육 및 돌봄 담당자는 알림장 등을 통해 아이의 활동상황에 대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로 나왔다. ③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수요조사 결과, 첫 번째가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와 소통하여 아이의 돌봄의 질 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며, 두 번째는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로 나왔다. 세 번째는 ‘교사와 아이의 숫자는 감염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이며, 네 번째는 ‘학부모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이고, 다섯 번째는 일반아동,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지원해야 한다’ 로 나타났다. ④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조직환경에 대해 수요조사 결과, 첫 번째가 ‘양육 및 아동돌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며,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양육 및 아동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로 나왔다.

I. 개 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영유아 보육 및 초등 아동돌봄 공백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육 및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재난상황에서 서울시 보육 및 아동돌봄 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성인 남녀 800명

나. 설문 기간 및 방법

1) 설문 기간 : 10월 18(월) ~ 29(금), 2주간

2) 방문 방법 및 응답율 : 방문조사 / 86.5%

* 925가구 방문을 실시하여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3) 신뢰수준은 95%이고, 표본오차 $\pm 4.05\%$ 에서 유효함

다. 설문조사 내용

1) 응답자 기초조사

가) 자녀 : 자녀 나이, 이용하는 기관, 이용하는 시간 등

나) 부모 : 취업 상태, 근로 유형, 경제적 수준 등

2) 보육 및 아동 돌봄서비스 공백에 따른 문제점, 보완할 점

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육 및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가) 물리적 환경, 인간적 환경, 프로그램, 조직환경 등

4)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모의 걱정수준

5)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II. 조사표 구성 및 분석방법

1.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자녀와 관련 변화사항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보육 및 돌봄 대상자의 심리적 변화와 특별한 양육 및 돌봄의 필요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함

< 표2-1> 자녀 관련 설문조사 내용

항목	세부내용
개인특성	· 아이의 나이, 코로나19 이전 이용기관 및 횟수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자녀의 행동 변화
보육·돌봄 관련	· 코로나19 발생 이후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 여부, 이용 시간

2.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모와 관련 변화사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부·모의 개인 환경변화와 아이의 환경변화에 따라 보육 및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함

< 표2-2> 부모 관련 설문조사 내용

항목	세부내용
개인특성	· 부모의 취업 상태, 배우자의 취업 상태, 근로 유형 · 가정의 경제적 수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가정의 변화 사항
보육·돌봄 관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 코로나19 발생 전·후 자녀의 양육 인원 또는 기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움 요인 등

3. 코로나19에 따른 걱정과 양육 스트레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모의 걱정수준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및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함

< 표2-3> 부모의 걱정수준 및 양육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 내용

항목	세부내용
걱정수준	· 아이의 외부 활동, 학업, 외부인 출입 등
양육 스트레스	· 육체적 노동, 개인 여가, 직장 출근, 보육 및 돌봄 비용 등

4. 질 높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기관 수요조사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질 높은 보육 및 아동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을 운영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및 인간적 환경, 프로그램, 조직환경 등을 조사함

< 표2-4> 보육 및 아동 돌봄 시설 등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항목	세부내용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 다양한 학습재료 및 기자재 필요성 ·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안전관리 요건 충족 등
인간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연계한 아이의 보육 및 돌봄 필요성 · 아동의 보육 및 돌봄을 위한 부모와의 소통 방법 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인원편성 · 아동의 유형(일반아동, 취약 아동, 장애 아동 등)에 맞는 프로그램 편성 필요성 · 학부모를 배려한 운영시간 조정 · 아동의 정서·인지, 신체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모와의 소통 필요성 등
조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양육·돌봄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필요성 등

5. 설문분석 방법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 돌봄 공백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이고, 표본오차 ± 4.05%에서 유효함

첫째,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음.

둘째, 자녀와 부모의 일반특성이 보육 및 아동 돌봄 공백과 수요분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함

Ⅲ.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 자녀와 관련된 일반사항

1) 자녀 수 현황

설문조사는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 인원에 대해 자녀 수를 확인한 결과<표 3-1>, 1자녀를 가진 부모가 434명(54.3%)으로 나타났으며 2자녀를 가진 부모는 348명(43.5%), 3자녀를 가진 부모는 18명(2.3%)으로 나타났다.

<표 3-1> 설문조사 인원에 대한 자녀 수 조사결과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명	434	54.3	54.3
2명	348	43.5	97.8
3명	18	2.3	100.0
합계	800	100.0	

2) 자녀의 나이 현황

설문 인원에 대해 자녀의 나이를 조사한 결과<표 3-2>, 총 자녀 1,147명 중 만 3세 미만 자녀가 111명(9.7%), 만 3세 자녀가 176명(15.3%), 만 4세 자녀가 190명(16.6%), 만 5세 자녀가 196명(17.1%), 만 6세 자녀가 112명(9.8%), 만 7세 자녀가 95명(8.3%), 만 8세 자녀가 123명(10.7%), 만 9세 자녀가 76명(6.6%), 만 10세 이상 자녀가 68명(5.9%)으로 나타났다. 아동 보육 및 돌봄 관련 조사를 진행에 있어 자녀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분석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표 3-2> 설문조사 인원에 대한 자녀 연령대 현황

나이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만 3세 미만	111	9.7	9.7
만 3세	176	15.3	25
만 4세	190	16.6	41.6
만 5세	196	17.1	58.7
만 6세	112	9.8	68.5
만 7세	95	8.3	76.8
만 8세	123	10.7	87.5
만 9세	76	6.6	94.1
만 10세 이상	68	5.9	100
합계	1,147	100	

3) 특별 양육·보육 필요성

설문 인원 자녀의 아이에 대해 특별한 양육·보육의 필요성 여부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3-3>,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23명(2.9%)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인원이 777명(97.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한 유형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육 지원이 8명(1%)이고 다문화 인원에 대한 양육·보육 지원이 11명(1.4%)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서 보듯이 소수 인원이지만 장애아동과 다문화 인원에 대한 양육·보육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3-3> 특별 양육·보육 필요성 및 도움이 필요한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필요성 조사	필요함	23	2.9	2.9
	필요 없음	777	97.1	100.0
필요한 부분	장애아동	8	1.0	42.1
	다문화	11	1.4	100.0

4)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의 이용기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설문 인원 자녀가 이용하던 기관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표3-4>, 어린이집이 458명(36.3%)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초등학교 262명(20.8%), 학원 260명(20.6%), 유치원 220명(17.5%), 지역아동센터 8명(0.6%), 키움센터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일부 소수 인원만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가 이용하던 기관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치원	220	17.5	17.5
어린이집	458	36.3	53.8
초등학교	262	20.8	74.6
키움센터	1	0.2	74.8
지역아동센터	8	0.6	75.4
학원	260	20.6	96
없음(가정양육)	51	4.0	100
합계	1260	100	

5) 코로나19 발생 후 이용기관 변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용기관 변화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표3-5>, 동일 기관에서 이용 시간의 변경이 411명(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변화 없음이 274명(32.7%), 기관종류 변화가 114명(13.6%), 가정양육으로 변경이 35명(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기존에 다니던 기관에서 이용 시간이 많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코로나19 발생 후 이용기관의 변화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변화 없음	274	32.7	32.7
기관 종류 변화	114	13.6	46.3
동일기관 이용 시간 변경	411	49	95.3
가정양육으로 변경	35	4.2	99.5
기타	5	0.5	100
합계	839	100	

6) 코로나19 발생 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자녀의 이용 기관 횟수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발령하였을 때 기존의 이용기관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3-6>, 주 3~4회가 386명(48.3%)으로 가장 높고, 주 5회 이상이 293명(36.6%), 주 1~2회가 62명(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발령시 이용기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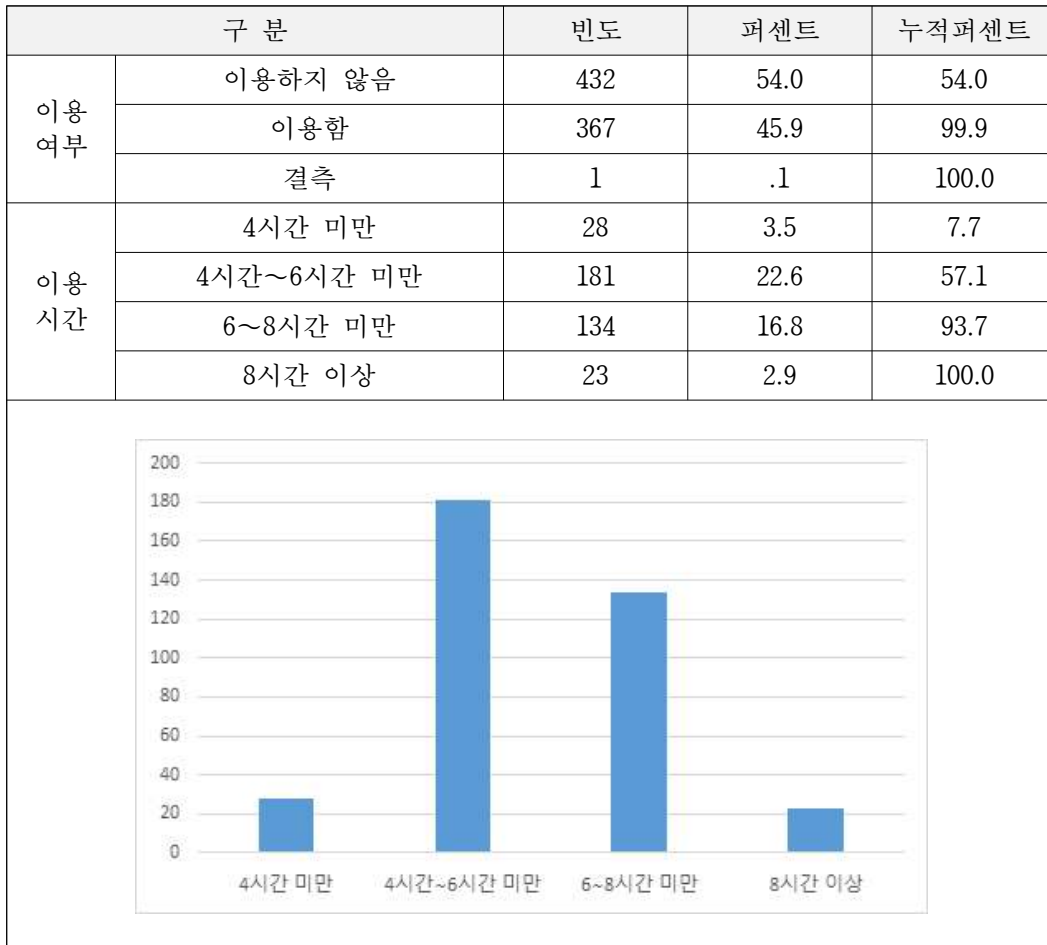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해당 없음	59	7.4	7.4
주 1~2회	62	7.8	15.1
주 3~4회	386	48.3	63.4
주 5회 이상	293	36.6	100.0
합계	800	100.0	

7) 긴급 보육 및 돌봄 이용 여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긴급보육·돌봄 기관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3-7>, 이용한 적이 있는 자녀가 367명(45.9%)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4~6시간 미만이 181명(22.6%)으로 제일 높고, 그다음은 6~8시간 미만이 134명(16.8%), 4시간 미만이 28명(3.5%), 8시간 이상이 23명(2.9%)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긴급보육 및 돌봄 기관을 많은 인원이 이용함에 따라 ‘질 높은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7> 아동 보육·돌봄 기관 이용 여부 및 시간



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어려움과 유형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자녀가 보이는 어려움이 있는지와 어려움에 대한 유형을 조사한 결과< 표3-8>, 자녀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모가 666명(83.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의 어려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가 246명(3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야외 신체활동 부재로 인한 과잉 행동이 167명(25.1%),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 126명(18.9%), 놀이 자료 및 또래와 소통 결여로 인한 어려움이 121명(18.2%)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들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어려움 유·무 및 유형

구 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어려움 유·무	없음	134	16.8	16.8
	있음	666	83.3	100.0
어려움에 대한 유형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	246	36.9	36.9
	불규칙한 생활 리듬	126	18.9	55.8
	야외 신체활동 부재로 인한 과잉 행동	167	25.1	80.9
	놀이 자료 및 또래와 소통 결여로 인한 어려움	121	18.2	99.1
	기타	6	.9	100.0

어려움 유형	빈도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	246
불규칙한 생활 리듬	126
야외 신체활동 부재로 인한 과잉 행동	167
놀이 자료 및 또래와 소통 결여로 인한 어려움	121
기타	6

나. 부모와 관련된 일반사항

1) 조사 대상의 자녀와의 관계

설문인원 총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표 3-9>, 어머니가 501명(62.6%), 아버지가 298명(37.3%)으로 나타났다.

<표 3-9> 설문조사 대상의 자녀와의 관계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아버지	298	37.3	37.3
어머니	501	62.6	99.9
기타	1	.1	100.0
합계	800	100.0	

2) 설문 인원의 취업 여부 및 배우자의 취업 상태

설문인원 총 8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 및 배우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3-10>, 설문 인원의 588명(73.5%)이 직장인이며 전업 부·모가 212명(26.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의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이 689명(86.1%)이고, 전업 부·모가 111명(13.9%)으로 나타났다.

<표 3-10> 설문 인원의 취업 여부 및 배우자의 취업 상태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취업 여부	직장인	588	73.5	73.5
	전업 부·모	212	26.5	100.0
배우자 취업 상태	직장인	689	86.1	86.1
	전업 부·모	111	13.9	100.0

< 설문 대상자 취업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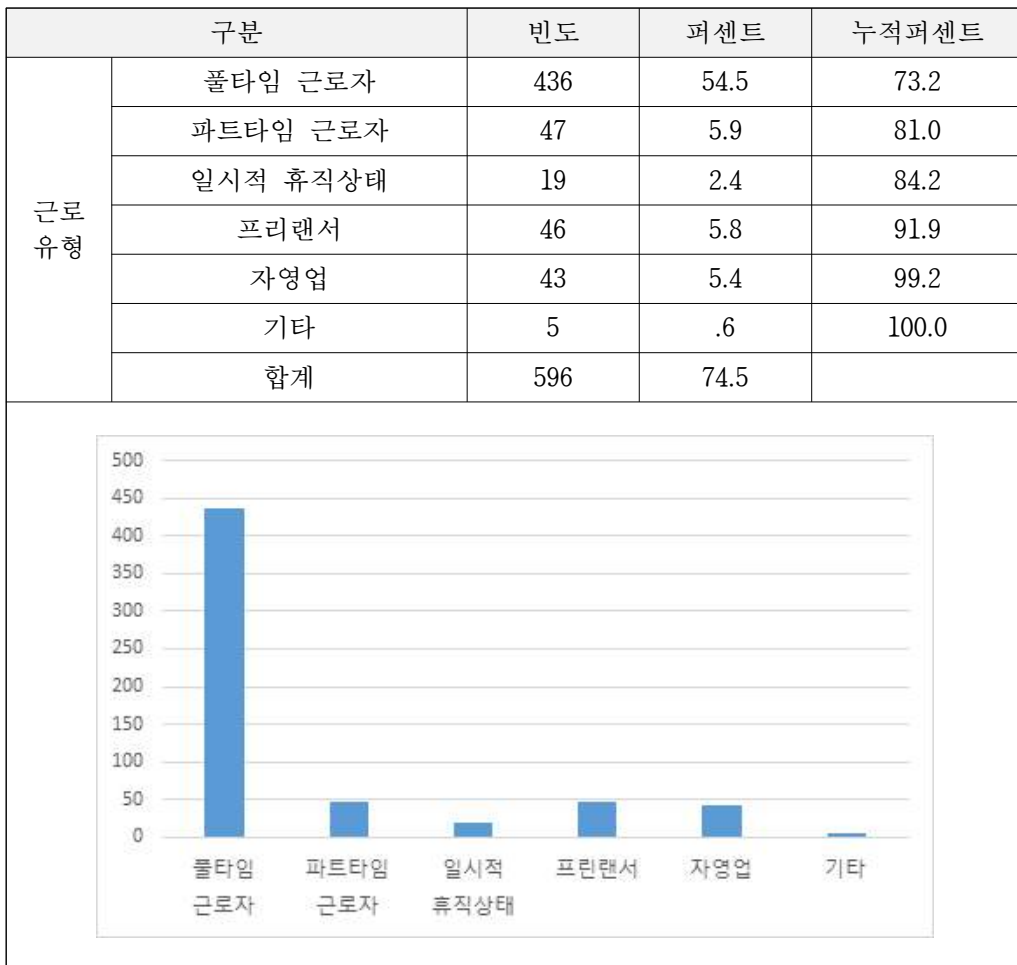
< 배우자의 취업 여부 >

3) 설문 대상자의 근로 유형

설문 대상자에 대해 근로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 800명 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인원 204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11> 분석 결과에 의하면 풀타임 근로자가 436명(54.5%)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파트타임 근로자 47명(5.9%), 프리랜서가 46명(5.8%), 자영업이 43명(5.4%), 일시적 휴직 상태가 19명(2.4%)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대다수가 풀타임 근로자(73.2%)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표 3-11> 설문 대상자의 근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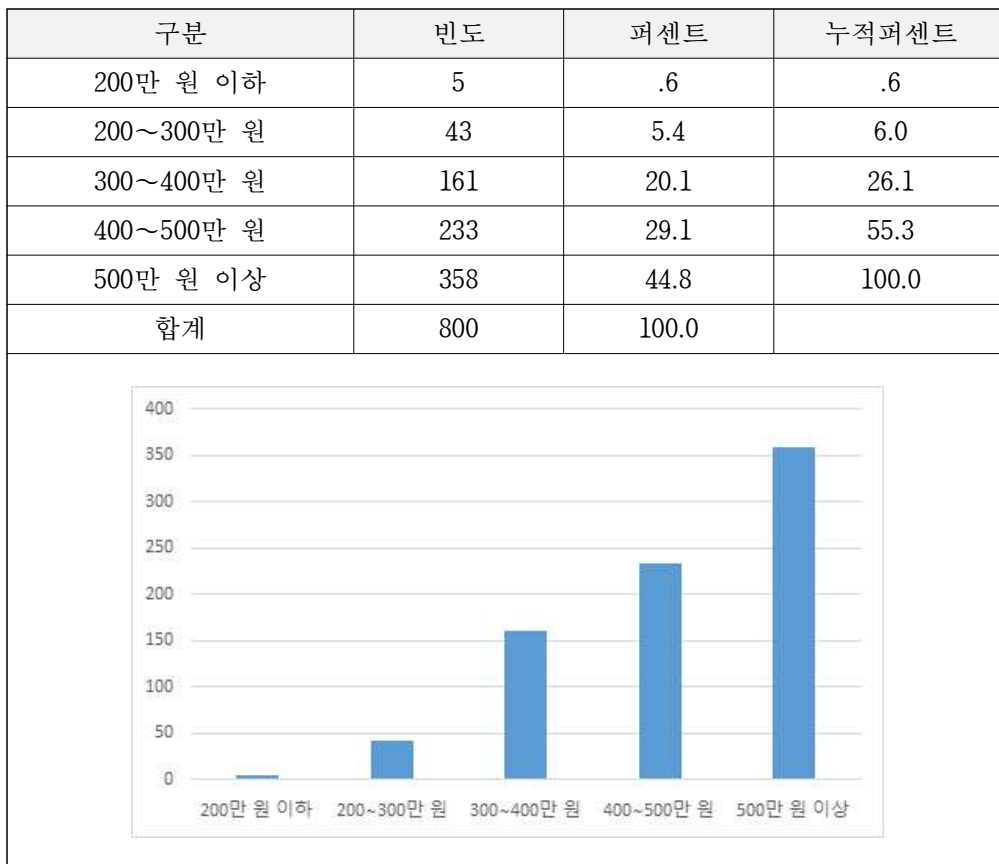
4) 설문 대상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설문 대상자의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수준을 조사한 결과<표 3-12>와 같이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이 358명(4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400~500만 원이 233명(29.1%), 300~400만 원이 161명(20.1%), 200~300만 원이 43명(5.4%), 200만 원 이하가 5명(0.6%)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월평균 가구 총소득(478만원) 이하의 가정이 26.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표 3-12> 설문 대상 가정의 전체 경제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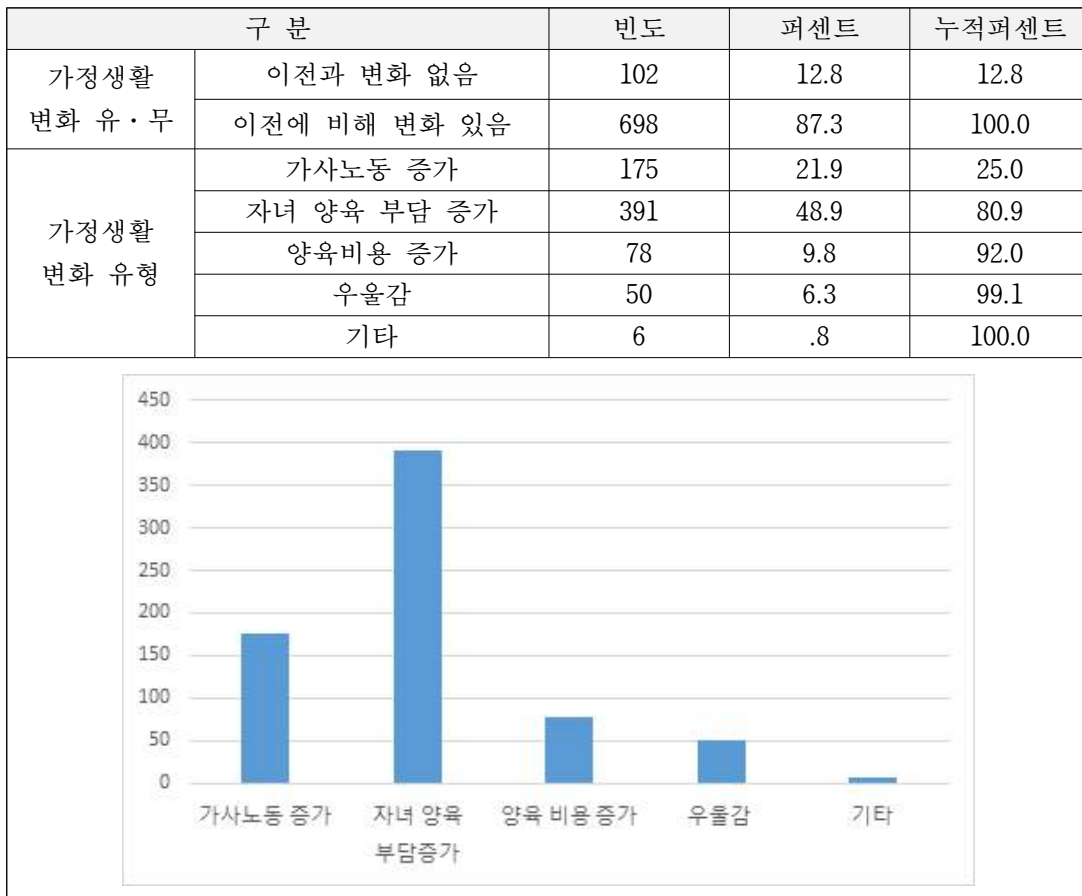


5) 가정생활 변화 여부 및 생활 변화 중 가장 큰 어려움

설문 대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가정생활의 변화가 있는지와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표 3-13>, 가정생활 변화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698명(87.3%)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102명(12.8%)만 코로나19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변화된 내용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자녀 양육 부담 증가가 391명(4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가사노동 증가가 175명(21.9%), 양육비용 증가가 78명(9.8%), 우울감이 50명(6.3%)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3-13> 가정생활 변화 여부 및 변화 중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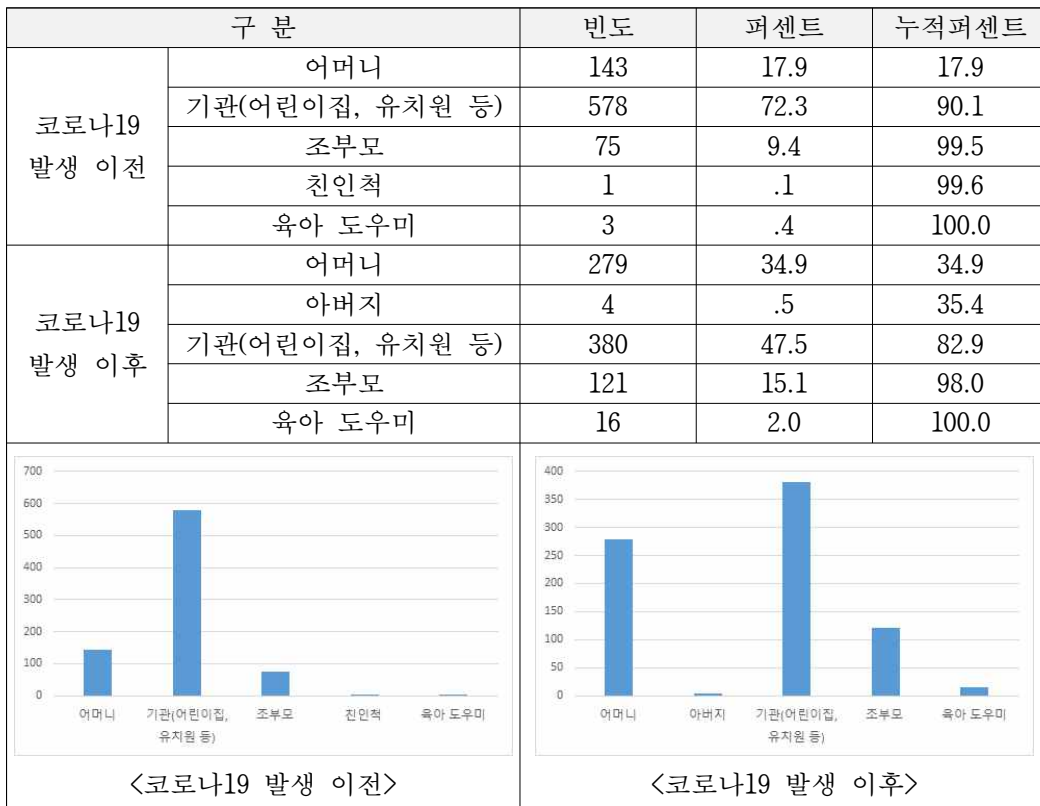
6)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낮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낮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3-14>와 같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578명(72.3%)으로 월등하게 높고, 다음은 어머니가 143명(17.9%), 조부모가 75명(9.4%), 육아 도우미가 3명(0.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380명(47.5%), 다음은 어머니가 279명(34.9%), 조부모가 121명(15.1%), 육아 도우미가 16명(2%)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의 순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순위는 변동이 없으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황이 72.3%에서 47.5%로 감소하였으며, 어머니의 역할(17.9% → 34.9%)과 조부모의 역할(9.4% → 15.1%)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안심하게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보육 및 돌봄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3-1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낮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



7)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유·무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3-15>,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한 사람이 53명(6.6%)이고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한 사람이 413명(51.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렇다’ 고 답변한 사람이 316명(39.5%)이고, ‘항상 그렇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18명(2.3%)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과반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표 3-15>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53	6.6	6.6
그렇지 않다	413	51.6	58.3
그렇다	316	39.5	97.8
항상 그렇다	18	2.3	100.0
합계	800	100.0	

8)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된 요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3-16>, 배우자와의 공동 육아가 244명(3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부모의 지원이 231명(28.9%), 긴급 돌봄이 175명(21.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급 돌봄에 대한 이용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홍보 부족이나 보육 및 돌봄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보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많은 홍보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6>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된 요인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배우자와의 공동 육아 증가	244	30.5	30.5
조부모의 지원	231	28.9	59.4
긴급 돌봄	175	21.9	81.3
기타 주변 사람의 지원	20	2.5	83.8
없음	129	16.1	99.9
기타	1	.1	100.0
합계	800	100.0	

2.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돌봄에 대한 환경변화

가. 자녀수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

자녀 인원수에 따라 가정의 생활변화를 확인한 결과,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설문인원의 87.2%가 변화가 생겼다고 답변하였으며, 1자녀의 경우 85.9%가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2자녀의 경우 88.5%, 3자녀의 경우 94.4%가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표 3-17>에 의하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생활의 변화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지원할 경우 자녀 인원수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7> 자녀 인원수에 따른 가정생활 변화

구분		가정생활 변화 여부		전체	
		변화 없음	변화 있음		
자녀 인원 수	1명	빈도	61	373	434
		자녀수 중 %	14.1%	85.9%	100.0%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59.8%	53.4%	54.2%
	2명	빈도	40	308	348
		자녀수 중 %	11.5%	88.5%	100.0%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39.2%	44.1%	43.5%
	3명	빈도	1	17	18
		자녀수 중 %	5.6%	94.4%	100.0%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1.0%	2.4%	2.2%
전체	빈도	102	698	800	
	자녀수 중 %	12.8%	87.2%	100.0%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100.0%	100.0%	100.0%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가정생활 변화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표 3-18>과 같이 나타났다. <표 3-18>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이 391명(5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가사노동 증가가 175명

(25.0%), 양육비용 증가가 78명(11.1%), 우울감이 50명(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는 자녀 가사노동 증가와 양육비용 증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 인원 수에 따라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갖기 때문에 아동 보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지원할 때 자녀 인원 수를 고려하려 경제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8〉 가정생활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구 분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전체	
		가사노동 증가	자녀 양육 부담 증가	양육비용 증가	우울감	기타		
자 녀 인 원 수	1	빈도	83	219	39	28	5	374
		자녀수 중 %	22.2%	58.6%	10.4%	7.5%	1.3%	100.0%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47.4%	56.0%	50.0%	56.0%	83.3%	53.4%
	2	빈도	88	164	35	21	1	309
		자녀수 중 %	28.5%	53.1%	11.3%	6.8%	0.3%	100.0%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50.3%	41.9%	44.9%	42.0%	16.7%	44.1%
	3	빈도	4	8	4	1	0	17
		자녀수 중 %	23.5%	47.1%	23.5%	5.9%	0.0%	100.0%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2.3%	2.0%	5.1%	2.0%	0.0%	2.4%
전체	빈도	175	391	78	50	6	700	
	자녀수 중 %	25.0%	55.9%	11.1%	7.1%	0.9%	100.0%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자녀 나이에 따라 가정생활의 변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가정생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 3-19>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자녀 인원 1,146명 중에서 가정생활을 변화가 생겼다고 답변한 사람은 1,007명(87.9%)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변화가 많은 자녀의 연령대는 4세가 169명(14.7%)이고, 다음은 3세가 168명(14.7%), 2세가 158명(13.8%), 7세가 114명(9.9%), 5세가 104명(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가정생활의 변화가 높은 연령대는 3~5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를 고려한 정책을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9> 자녀 나이에 따라 가정생활 변화 여부 조사 결과

구 분		가정생활 변화 여부		전체	
		변화 없음	변화 있음		
자녀 나이	1	빈도	27	84	111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2.4%	7.3%	9.7%
	2	빈도	18	158	176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1.6%	13.8%	15.4%
	3	빈도	21	168	189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1.8%	14.7%	16.5%
	4	빈도	27	169	196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2.4%	14.7%	17.1%
	5	빈도	8	104	112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0.7%	9.1%	9.8%
	6	빈도	8	87	95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0.7%	7.6%	8.3%
	7	빈도	9	114	123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0.8%	9.9%	10.7%
	8	빈도	10	66	76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0.9%	5.7%	6.6%
	9	빈도	11	57	68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0.9%	5%	5.9%
전체	빈도	139	1,007	1,146	
	가정생활 변화 여부 중 %	12.1%	87.9%	100.0%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정생활 변화 중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 <표 20>과 같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의 인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은 가사노동 증가, 양육비용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 자녀 나이에 따라 가장 어려운 점 조사 결과

구분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전체	
		가사노동 증가	자녀양육 부담 증가	양육비용 증가	우울감	기타		
자 녀 나 이	1	빈도	27	44	7	5	0	83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2.7%	4.4%	0.7%	0.5%	0	8.2%
	2	빈도	33	90	19	13	3	158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3.3%	8.9%	1.9%	1.3%	0.3%	15.6%
	3	빈도	43	95	18	12	1	169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4.2%	9.4%	1.8%	1.2%	0.1%	16.7%
	4	빈도	46	100	18	7	0	171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4.6%	9.9%	1.8%	0.7%	0	17%
	5	빈도	29	51	14	9	1	104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2.9%	5%	1.4%	0.9	0.1	10.3
	6	빈도	22	51	7	7	0	87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2.2%	5%	0.7%	0.7%	0	8.6%
	7	빈도	31	59	13	9	2	114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3.1%	5.8%	1.3%	0.9%	0.2%	11.3%
	8	빈도	13	41	8	5	0	67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1.3%	4.1%	0.8%	0.5%	0	6.6%
	9	빈도	17	30	9	2	0	58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1.7%	3%	0.9%	0.2	0	5.7%
전체	빈도	261	561	113	69	7	1,011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중 %	25.8%	55.5%	11.2%	6.8%	0.7%	100%	

다. 자녀의 인원수에 따른 자녀 보호 및 돌봄 기관 변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곳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결과 다음 <표 3-21>과 같이 나타났다. <표 3-21>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466명(58.3%)로 나타났으며,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34명(41.7%)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발생 이후 과반수 이상이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곳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부모가 안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 보호 및 돌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3-21>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곳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구 분		안심하고 맡길곳 있음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29	218	177	10	434
		자녀수 중 %	6.7%	50.2%	40.8%	2.3%	100.0%
		안심하고 맡길곳 있음 중 %	54.7%	52.8%	56.0%	55.6%	54.2%
	2	빈도	22	186	132	8	348
		자녀수 중 %	6.3%	53.4%	37.9%	2.3%	100.0%
		안심하고 맡길곳 있음 중 %	41.5%	45.0%	41.8%	44.4%	43.5%
	3	빈도	2	9	7	0	18
		자녀수 중 %	11.1%	50.0%	38.9%	0.0%	100.0%
		안심하고 맡길곳 있음 중 %	3.8%	2.2%	2.2%	0.0%	2.2%
전체	빈도	53	413	316	18	800	
	자녀수 중 %	6.6%	51.6%	39.5%	2.2%	100.0%	
	안심하고 맡길곳 있음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리고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의 낮 시간 이용하는 보호 기관을 확인한 결과 다음 <표 3-22>과 같이 나타났다. 즉, 자녀 인원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자녀들이 다니던 기관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등이 578명(72.2%)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어머니의 양육이 143명(17.9%), 조부모가 75명

(9.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인원수가 3명일 경우 낮 시간 이용하는 보육기관에서 어머니의 양육이 8명(4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유치원 등의 기관이 7명(38.9명),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3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많은 부모의 경우 어머니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양육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3-22> 자녀 인원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 양육 인원 조사결과

구분		코로나19 발생 이전 낮 시간 자녀 보육					전체	
		어머니	기관 (유치원 등)	조부모	친인척	육아 도우미		
자 녀 수	1	빈도	83	308	39	1	3	434
		자녀수 중 %	19.1%	71.0%	9.0%	0.2%	0.7%	100.0%
		코로나 이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58.0%	53.3%	52.0%	100.0%	100.0%	54.2%
	2	빈도	52	263	33	0	0	348
		자녀수 중 %	14.9%	75.6%	9.5%	0.0%	0.0%	100.0%
		코로나 이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36.4%	45.5%	44.0%	0.0%	0.0%	43.5%
	3	빈도	8	7	3	0	0	18
		자녀수 중 %	44.4%	38.9%	16.7%	0.0%	0.0%	100.0%
		코로나 이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5.6%	1.2%	4.0%	0.0%	0.0%	2.2%
전체	빈도	143	578	75	1	3	800	
	자녀수 중 %	17.9%	72.2%	9.4%	0.1%	0.4%	100.0%	
	코로나 이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자녀가 이용하던 양육 기관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3-23>과 같이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이 459명(36.5%)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초등학교가 261명(20.7%), 유치원이 220명(36.5명), 학원이 157명(12.5%), 아동센터가 8명(0.6%), 키움센터가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대부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 대한 이용은 매우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상시 이동센터와 키움센터에 대한 홍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3-23〉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의 양육 기관 조사 결과

구분		이용기관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키움센터	아동센터	학원	없음		
자녀 수	1	빈도	80	240	80	1	4	95	35	535
		이용기관 중 %	6.4%	19%	6.4%	0.1	0.3%	7.5%	2.8%	42.5%
	2	빈도	131	213	165	0	3	57	110	679
		이용기관 중 %	10.4%	16.9%	13.1%	0	0.2%	4.5%	8.7%	54%
	3	빈도	9	6	16	0	1	5	7	44
		이용기관 중 %	0.7%	0.5%	1.3%	0	0.1	0.4%	0.5%	3.5%
전체	빈도	220	459	261	1	8	157	152	1,258	
	이용기관 중 %	17.5%	36.5	20.7%	0.1%	0.6%	12.5%	12.1%	100%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이용하던 기관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 3-24〉과 같이 나타났다. 즉, 보육 및 교육시간의 변화가 411명(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기관 종류의 변화가 114명(13.6%), 가정양육이 35명(4.2%), 기타 5명(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274명(32.7%)으로 나타났다.

〈표 3-24〉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의 이용기관 변화

			기관이용 변화					전체
			변화 없음	기관 종류 변화	보육 및 교육시간 변화	가정양육	기타	
자녀 수	1	빈도	143	50	216	23	3	435
		기관이용 변화1 중 %	17%	6%	25.7%	2.7%	0.3%	51.7%
	2	빈도	126	61	185	11	2	385
		기관이용 변화1 중 %	15%	7.2%	22%	1.3%	0.2%	45.9%
	3	빈도	5	3	10	1	0	19
		기관이용 변화1 중 %	0.6%	0.4	1.2%	0.1%		2.3%
전체	빈도	274	114	411	35	5	839	
	기관이용 변화1 중 %	32.7%	13.6%	49%	4.2%	0.5%	100%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이 발령되었을 때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을 얼마나 이용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 3-25>과 같이 나타났다. 즉, 주 3~4회가 386명(48.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주 5회 이상이 293명(36.6%), 주 1~2회가 62명(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의 기관 이용 평균 횟수

구분		기관이용 횟수				전체	
		해당없음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		
자 녀 수	1	빈도	43	33	202	156	434
		자녀수 중 %	9.9%	7.6%	46.5%	35.9%	100.0%
		기관이용 횟수 중 %	72.9%	53.2%	52.3%	53.2%	54.2%
	2	빈도	14	27	175	132	348
		자녀수 중 %	4.0%	7.8%	50.3%	37.9%	100.0%
		기관이용 횟수 중 %	23.7%	43.5%	45.3%	45.1%	43.5%
	3	빈도	2	2	9	5	18
		자녀수 중 %	11.1%	11.1%	50.0%	27.8%	100.0%
		기관이용 횟수 중 %	3.4%	3.2%	2.3%	1.7%	2.2%
전체	빈도	59	62	386	293	800	
	자녀수 중 %	7.4%	7.8%	48.2%	36.6%	100.0%	
	기관이용 횟수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낮 시간 이용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3-22>와 같이 나타났다. <표 3-26>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유치원 등의 기관이용이 낮고, 어머니의 양육과 조부모의 양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유치원 등의 기관이용이 72.7%,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47.5%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은 17.9%에서 34.9%로 증가하고, 조부모의 양육도 9.4%에서 15.1%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부족하고, 부모가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활동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에 대비하여 각 기관에서는 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역 대책과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3-26> 자녀 인원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 보육기관 조사결과

구분		코로나19 발생 이후 낮시간 자녀 보육					전체	
		어머니	아버지	기관 (유치원 등)	조부모	육아 도우미		
자 녀 수	1	빈도	144	3	216	65	6	434
		자녀수 중 %	33.2%	0.7%	49.8%	15.0%	1.4%	100.0%
		코로나 이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51.6%	75.0%	56.8%	53.7%	37.5%	54.2%
	2	빈도	126	1	158	54	9	348
		자녀수 중 %	36.2%	0.3%	45.4%	15.5%	2.6%	100.0%
		코로나 이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45.2%	25.0%	41.6%	44.6%	56.2%	43.5%
	3	빈도	9	0	6	2	1	18
		자녀수 중 %	50.0%	0.0%	33.3%	11.1%	5.6%	100.0%
		코로나 이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3.2%	0.0%	1.6%	1.7%	6.2%	2.2%
전체	빈도	279	4	380	121	16	800	
	자녀수 중 %	34.9%	0.5%	47.5%	15.1%	2.0%	100.0%	
	코로나 이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곳이 없다고 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낮 시간 동안 아이의 보육 및 돌봄 기관을 확인한 결과,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육 유형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3-27>과 같이 나타났다. 즉, 부모의 공동 양육이 244명(3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부모의 지원이 231명(28.9%)이고, 긴급돌봄이 175명(2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부모들이 양육기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의 보육 및 돌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3-27>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

구분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						전체	
		공동육아 증가	조부모 지원	긴급 돌봄	기타 주변인 도움	없음	기타		
자 녀 수	1	빈도	130	127	97	13	67	0	434
		자녀수 중 %	30.0%	29.3%	22.4%	3.0%	15.4%	0.0%	100.0%
		도움 요인 중 %	53.3%	55.0%	55.4%	65.0%	51.9%	0.0%	54.2%
	2	빈도	108	101	75	6	58	0	348
		자녀수 중 %	31.0%	29.0%	21.6%	1.7%	16.7%	0.0%	100.0%
		도움 요인 중 %	44.3%	43.7%	42.9%	30.0%	45.0%	0.0%	43.5%
	3	빈도	6	3	3	1	4	1	18
		자녀수 중 %	33.3%	16.7%	16.7%	5.6%	22.2%	5.6%	100.0%
		도움 요인 중 %	2.5%	1.3%	1.7%	5.0%	3.1%	100.0%	2.2%
전체	빈도	244	231	175	20	129	1	800	
	자녀수 중 %	30.5%	28.9%	21.9%	2.5%	16.1%	0.1%	100.0%	
	도움 요인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긴급보육·돌봄 이용 실적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아동 긴급보육·돌봄교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 3-28>과 같이 나타났다. 즉, 이용하지 않은 부모가 432명(54%)이고, 이용한 부모가 368명(46%)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과반수 이상이 긴급보육·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은 부모가 248명(57.1%)이고, 이용한 부모가 186명(42.8%)으로 나타났으며, 2명일 경우 이용하지 않은 부모가 176명(50.6%)이고 이용한 부모가 172명(49.4%)이며, 3명일 경우에는 이용한 부모가 10명(55.6%)이고 이용하지 않은 부모가 8명(44.4%)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긴급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자녀가 적을수록 긴급보육 및 서비스 이용이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긴급보육 및 돌봄 서비스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자녀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28> 긴급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조사결과

구분			긴급 보육 및 돌봄 이용 여부		전체
			이용하지 않음	이용	
자 녀 수	1	빈도	248	186	434
		자녀수 중 %	57.1%	42.8%	100.0%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 여부 중 %	57.4%	50.4%	54.2%
	2	빈도	176	172	348
		자녀수 중 %	50.6%	49.4%	100.0%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 여부 중 %	40.7%	46.9%	43.5%
	3	빈도	8	10	18
		자녀수 중 %	44.4%	55.6%	100.0%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 여부 중 %	1.9%	2.7%	2.2%
전체	빈도	432	368	800	
	자녀수 중 %	54.0%	46%	100.0%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 여부 중 %	100.0%	100.0%	100.0%	

그리고 긴급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다음<표 3-29>과 같이

나타났다. <표 3-29>에 의하면 1일 4~6시간 이용이 181명(49.5%)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6~8시간 이용이 134명(36.6%), 4시간 미만이 28명(7.7%), 8시간 이상이 23명(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9> 긴급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조사결과

구 분			1일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시간				전체
			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자 녀 수	1	빈도	17	100	58	10	185
		자녀수 중 %	9.2%	54.1%	31.4%	5.4%	100.0%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 시간 중 %	60.7%	55.2%	43.3%	43.5%	50.5%
	2	빈도	10	76	73	12	171
		자녀수 중 %	5.8%	44.4%	42.7%	7.0%	100.0%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 시간 중 %	35.7%	42.0%	54.5%	52.2%	46.7%
	3	빈도	1	5	3	1	10
		자녀수 중 %	10.0%	50.0%	30.0%	10.0%	100.0%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 시간 중 %	3.6%	2.8%	2.2%	4.3%	2.7%
전체	빈도	28	181	134	23	366	
	자녀수 중 %	7.7%	49.5%	36.6%	6.3%	100.0%	
	긴급보육 및 돌봄 이용 시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마.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려움

코로나19 발생함에 따라 부모의 취업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다음<표 3-30>과 같이 나타났다. 즉,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와 전업 부·모 여부에 따라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부모의 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부담 증가가 391명(55.9%)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가사노동 증가가 175명(25%), 양육 비용 증가가 78명(11.1%), 우울감 50명(7.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인과 전업 부·모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양육부담 증가는 직장인(58.7)이 전업 부·모(48.1)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사노동 증가는 전업 부·모(29.9%)가 직장인(2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용 증가는 전업 부·모(12.3%)가 직장인(10.7%)보다 높고, 우울감은 전업 부·모(7.1%)가 직장인(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아동 보육 및 돌봄 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부모의 취업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0> 부모 취업 유형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 조사결과

구분		변화 중 가장 어려운점					전체	
		가사노동 증가	양육부담 증가	양육 비용 증가	우울감	기타		
부모 취업 상태	직장인	빈도	119	301	55	32	6	513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23.2%	58.7%	10.7%	6.2%	1.2%	100.0%
		어려운점 중 %	68.0%	77.0%	70.5%	64.0%	100.0%	73.3%
	전업 부·모	빈도	56	90	23	18	0	187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29.9%	48.1%	12.3%	9.6%	0.0%	100.0%
		어려운점 중 %	32.0%	23.0%	29.5%	36.0%	0.0%	26.7%
전체		빈도	175	391	78	50	6	700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25.0%	55.9%	11.1%	7.1%	0.9%	100.0%
		어려운점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 3-30>, <표 3-31>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전 낮 시간 자녀 보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 3-31>과 같다. 부모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유치원 등 기관이 578명(72.2%)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어머니가 143명(17.9%), 조부모가 75명(9.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분류에서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유치원 등 기관이 451명(76.7%)로 가장 높고, 조부모가 74명(12.6%), 어머니가 60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전업 부·모인 경우에는 유치원 등 기관이 127명(59.9%)으로 제일 높고, 어머니가 83명(39.2%), 조부모가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부모가 직장인(76.7%)인 경우 전업 부·모(59.9%)에 비해 유치원 등 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고,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는 어머니(10.2%)의 양육비율과 조부모(12.6%)의 양육비율이 비슷하지만, 부모가 전업 부·모인 경우에는 어머니(39.2%)의 양육이 조부모(0.5%)에 의한 양육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아동 보육 및 돌봄 정책을 제시할 때는 부모의 취업상태 등을 고려한 정책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3-31>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녀 양육 조사결과

구 분			코로나19 발생 이전 낮 시간 자녀 보육					전체
			어머니	기관 (유치원 등)	조부모	친인척	육아 도우미	
취업 상태	직 장 인	빈도	60	451	74	1	2	588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10.2%	76.7%	12.6%	0.2%	0.3%	100.0%
		코로나 이전 자녀 보육 중 %	42.0%	78.0%	98.7%	100.0%	66.7%	73.5%
	전업 부·모	빈도	83	127	1	0	1	212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39.2%	59.9%	0.5%	0.0%	0.5%	100.0%
		코로나 이전 자녀 보육 중 %	58.0%	22.0%	1.3%	0.0%	33.3%	26.5%
전체	빈도	143	578	75	1	3	800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17.9%	72.2%	9.4%	0.1%	0.4%	100.0%	
	코로나 이전 자녀 보육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둘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낮 시간 자녀 보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 3-32>과 같다. 취업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부모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유치원 등 기관 이용이 380명(47.5%)으로 가장 높고, 어머니의 양육이 279명(34.9%),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121명(1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유치원 등 기관이용이 325명(55.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어머니의 양육이 126명(21.4%), 조부모의 양육이 119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전업 부·모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이 153명(72.2%)으로 가장 높고, 유치원 등 기관이용이 55명(25.9%), 조부모의 양육이 2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치원 등 기관 이용이 72.2%에서 47.5%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이 17.9%에서 34.9%로 증가하였고, 조부모의 양육 또한 9.4%에서 15.1%로 증가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이 없다가 새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유치원 등 기관이 코로나19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부모들이 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직접 또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 보육 및 돌봄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방역대책과 직장인 및 전업 부모의 직장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시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3-32>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 양육 조사결과

구 분		코로나19 발생 이후 낮 시간 자녀 보육					전체	
		어머니	아버지	기관 (유치원 등)	조부모	육아 도우미		
취업 상태	직 장 인	빈도	126	4	325	119	14	588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21.4%	0.7%	55.3%	20.2%	2.4%	100.0%
		코로나 이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45.2%	100.0%	85.5%	98.3%	87.5%	73.5%
	전업 부·모	빈도	153	0	55	2	2	212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72.2%	0.0%	25.9%	0.9%	0.9%	100.0%
		코로나 이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54.8%	0.0%	14.5%	1.7%	12.5%	26.5%
전체	빈도	279	4	380	121	16	800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34.9%	0.5%	47.5%	15.1%	2.0%	100.0%	
	코로나 이후 낮 시간 자녀 보육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

직장인 및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주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 3-32>과 같이 나타났다. <표 3-33>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인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인원이 466명(58.2%)이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의 인원은 334명(41.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인원이 313명(53.3%)이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의 인원은 275명(46.8%)으로 나타났다. 전업 부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인원이 153명(71.2%)이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의 인원은 59명(27.8%)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직장인 보다 전업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장인의 경우 조부모 등의 지인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만 전업 부모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전업 부모 및 직장인 부모가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기관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3-33>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 등의 신뢰도 조사결과

구 분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모의 취업 상태	직 장 인	빈도	31	282	260	15	588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5.3%	48.0%	44.2%	2.6%	100.0%
		코로나 이후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58.5%	68.3%	82.3%	83.3%	73.5%
	전업 부·모	빈도	22	131	56	3	212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10.4%	61.8%	26.4%	1.4%	100.0%
		코로나 이후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41.5%	31.7%	17.7%	16.7%	26.5%
전체	빈도	53	413	316	18	800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6.6%	51.6%	39.5%	2.2%	100.0%	
	코로나 이후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거나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 3-34>과 같이 나타났다. 부모 전체의 조사결과에서는 공동육아 증가가 244명(3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조부모의 지원이 231명(28.9%), 긴급 돌봄이 175명(21.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조부모의 지원이 198명(33.7%)으로 가장 높고, 공동육아 증가가 184명(31.3%), 긴급 돌봄이 128명(21.8%)로 나타났다. 전업 부모의 경우 공동육아 증가가 60명(28.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긴급 돌봄이 47명(22.2%), 조부모의 지원이 33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3>의 조사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조부모의 지원과 공동육아 증가가 긴급 돌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 부모의 경우는 ‘도움이 된 요인이 없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인 보다 전업 부모들이 긴급 돌봄에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4> 코로나19 극복하거나 적응에 가장 도움 요인 조사결과

구 분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						전체
			공동육아 증가	조부모 지원	긴급 돌봄	주변인 도움	없음	기타	
귀하의 취업 상태	직 장 인	빈도	184	198	128	15	62	1	588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31.3%	33.7%	21.8%	2.6%	10.5%	0.2%	100.0%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 중 %	75.4%	85.7%	73.1%	75.0%	48.1%	100.0%	73.5%
	전업 부·모	빈도	60	33	47	5	67	0	212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28.3%	15.6%	22.2%	2.4%	31.6%	0.0%	100.0%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 중 %	24.6%	14.3%	26.9%	25.0%	51.9%	0.0%	26.5%
전체	빈도	244	231	175	20	129	1	800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30.5%	28.9%	21.9%	2.5%	16.1%	0.1%	100.0%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 근로유형에 따라 자녀 양육에 어려운점

부모의 근로유형을 고려할 때 코로나 19 발생에 의한 변화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조사결과 다음<표 3-35>과 같이 나타났다.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양육부담 증가가 301명(5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가사노동 증가가 121명(23.4%), 양육 비용 증가가 55명(10.6%), 우울감이 34명(6.6%)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 중 풀타임 근로자는 양육부담 증가가 226명(6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가사노동 증가가 86명(23.2%), 양육비용 증가가 39명(10.5%), 우울감이 17명(4.6%) 순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양육부담 증가가 25명(5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가사노동 증가가 10명(23.8%), 우울감이 5명(11.9%), 양육비용 증가가 2명(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5>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 가장 어려운 점 조사결과

구 분		변화 중 가장 어려운 점					전체	
		가사노동 증가	양육부담 증가	양육 비용 증가	우울감	기타		
근 로 유 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86	226	39	17	3	371
		근로 유형 중 %	23.2%	60.9%	10.5%	4.6%	0.8%	100.0%
		가장 어려운점 중 %	71.1%	75.1%	70.9%	50.0%	50.0%	71.8%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10	25	2	5	0	42
		근로 유형 중 %	23.8%	59.5%	4.8%	11.9%	0.0%	100.0%
		가장 어려운점 중 %	8.3%	8.3%	3.6%	14.7%	0.0%	8.1%
	일시적 휴직상태	빈도	5	8	2	3	1	19
		근로 유형 중 %	26.3%	42.1%	10.5%	15.8%	5.3%	100.0%
		가장 어려운점 중 %	4.1%	2.7%	3.6%	8.8%	16.7%	3.7%
	프리랜서	빈도	12	17	3	7	1	40
		근로 유형 중 %	30.0%	42.5%	7.5%	17.5%	2.5%	100.0%
		가장 어려운점 중 %	9.9%	5.6%	5.5%	20.6%	16.7%	7.7%
	자영업	빈도	6	23	9	2	0	40
		근로 유형 중 %	15.0%	57.5%	22.5%	5.0%	0.0%	100.0%
		가장 어려운점 중 %	5.0%	7.6%	16.4%	5.9%	0.0%	7.7%
	기타	빈도	2	2	0	0	1	5
		근로 유형 중 %	40.0%	40.0%	0.0%	0.0%	20.0%	100.0%
		가장 어려운점 중 %	1.7%	0.7%	0.0%	0.0%	16.7%	1.0%
전체	빈도	121	301	55	34	6	517	
	근로 유형 중 %	23.4%	58.2%	10.6%	6.6%	1.2%	100.0%	
	가장 어려운점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적 휴직상태의 부모는 양육부담 증가가 8명(4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가사노동 증가가 5명(26.3%), 우울감이 3명(15.8%), 양육비용 증가가 2명(4.8%)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양육부담 증가가 17명(4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가사노동 증가가 12명(30.0%), 우울감이 7명(17.5%), 양육비용 증가가 7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양육부담 증가가 23명(5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양육비용 증가가 9명(22.5%), 가사노동 증가가 6명(15.0%), 우울감이 2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코로나19 발생으로 양육부담 증가는 공통적으로 제일 높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용의 증가는 자영업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보육 및 돌봄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무료 보육 및 돌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나, 일시적 휴직상태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풀타임 근로자나 자영업 근로자에 비해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있어 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들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근로 유형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를 안심하게 맡길 곳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 3-36>과 같이 나타났다.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부모가 총 596명 중 319명(53.5%)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답한 부모는 277명(46.5%)으로 나타났다.

<표 3-36>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기관(사람) 조사결과

구 분			코로나 이후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근로 유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19	199	205	13	436
		근로 유형 중 %	4.4%	45.6%	47.0%	3.0%	100.0%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55.9%	69.8%	78.2%	86.7%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2	29	14	2	47
		근로 유형 중 %	4.3%	61.7%	29.8%	4.3%	100.0%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5.9%	10.2%	5.3%	13.3%	7.9%
	일시적 휴직상태	빈도	3	12	4	0	19
		근로 유형 중 %	15.8%	63.2%	21.1%	0.0%	100.0%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8.8%	4.2%	1.5%	0.0%	3.2%
	프리랜서	빈도	4	24	18	0	46
		근로 유형 중 %	8.7%	52.2%	39.1%	0.0%	100.0%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11.8%	8.4%	6.9%	0.0%	7.7%
	자영업	빈도	6	20	17	0	43
		근로 유형 중 %	14.0%	46.5%	39.5%	0.0%	100.0%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17.6%	7.0%	6.5%	0.0%	7.2%
기타	빈도	0	1	4	0	5	
	근로 유형 중 %	0.0%	20.0%	80.0%	0.0%	100.0%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0.0%	0.4%	1.5%	0.0%	0.8%	
전체	빈도	34	285	262	15	596	
	근로 유형 중 %	5.7%	47.8%	44.0%	2.5%	100.0%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지인 여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부모가 총 436명 중 218명(50%)으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답한 부모는 218명(5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부모가 총 47명 중 31명(66%)으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답한 부모는 16명(34.1%)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부모가 총 19명 중 15명(79%)으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답한 부모는 4명(21.1%)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부모가 총 46명 중 28명(60.9%)으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답한 부모는 18명(39.1%)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부모가 총 43명 중 26명(60.5%)으로 나타났고,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라고 답한 부모는 17명(39.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풀타임의 근로자보다 파트타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과 같은 부모에 대해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거나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표3-37>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 596명 중 조부모의 지원이 199명(3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동육아 증가가 185명(31.0%), 긴급 돌봄이 129명(2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7>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의 조사결과

구 분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						전체	
		공동육아 증가	조부모 지원	긴급 돌봄	주변인 도움	없음	기타		
근로 유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125	168	92	10	40	1	436
		근로 유형 중 %	28.7%	38.5%	21.1%	2.3%	9.2%	0.2%	100.0%
		도움이 된 요인 중 %	67.6%	84.4%	71.3%	62.5%	60.6%	100.0%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21	7	12	1	6	0	47
		근로 유형 중 %	44.7%	14.9%	25.5%	2.1%	12.8%	0.0%	100.0%
		도움이 된 요인 중 %	11.4%	3.5%	9.3%	6.2%	9.1%	0.0%	7.9%
	일시적 휴직상태	빈도	9	3	2	1	4	0	19
		근로 유형 중 %	47.4%	15.8%	10.5%	5.3%	21.1%	0.0%	100.0%
		도움이 된 요인 중 %	4.9%	1.5%	1.6%	6.2%	6.1%	0.0%	3.2%
	프리랜서	빈도	16	12	12	1	5	0	46
		근로 유형 중 %	34.8%	26.1%	26.1%	2.2%	10.9%	0.0%	100.0%
		도움이 된 요인 중 %	8.6%	6.0%	9.3%	6.2%	7.6%	0.0%	7.7%
	자영업	빈도	12	9	10	2	10	0	43
		근로 유형 중 %	27.9%	20.9%	23.3%	4.7%	23.3%	0.0%	100.0%
		도움이 된 요인 중 %	6.5%	4.5%	7.8%	12.5%	15.2%	0.0%	7.2%
	기타	빈도	2	0	1	1	1	0	5
		근로 유형 중 %	40.0%	0.0%	20.0%	20.0%	20.0%	0.0%	100.0%
		도움이 된 요인 중 %	1.1%	0.0%	0.8%	6.2%	1.5%	0.0%	0.8%
전체	빈도	185	199	129	16	66	1	596	
	근로 유형 중 %	31.0%	33.4%	21.6%	2.7%	11.1%	0.2%	100.0%	
	도움이 된 요인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총 436명 중 조부모의 지원이 168명(3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동육아 증가가 125명(28.7%), 긴급 돌봄이 92명(21.1%) 순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총 47명 중 공동육아 증가가 21명(4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긴급 돌봄이 12명(25.5%), 조부모의 지원이 7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상태의 부모는 총 19명 중 공동육아 증가가 9명(47.4%)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조부모의 지원이 3명(15.8%), 긴급 돌봄이 2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총 46명 중 공동육아 증가가 16명(34.8%)으로 가장 높고, 다음

으 조부모 지원과 긴급 돌봄이 각각 12명(26.1%)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총 43명 중 공동육아 증가가 12명(27.9%)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긴급 돌봄이 10명(23.3%), 조부모 지원이 9명(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부모가 풀타임의 근로자의 경우 조부모 등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해 긴급 돌봄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나 자영업을 하는 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급 돌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지원할 때 부모의 근로 유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걱정(원인) 분석 결과

가.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의 외부 활동(놀이터, 학원 등) 제한 여부 분석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의 외부 활동(놀이터, 학원 등)을 제한하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① 자녀 인원수에 따라 부모의 걱정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38>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591명(73.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09명(26.1%)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인원수와는 별개로 부모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에 걱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8> 코로나 19에 따라 자녀의 외부활동 제한여부 조사결과

구 분		걱정수준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4	111	285	34	434
		자녀수 중 %	0.9%	25.6%	65.7%	7.8%	100.0%
		걱정수준 중 %	50.0%	55.2%	54.4%	50.7%	54.2%
	2	빈도	3	87	231	27	348
		자녀수 중 %	0.9%	25.0%	66.4%	7.8%	100.0%
		걱정수준 중 %	37.5%	43.3%	44.1%	40.3%	43.5%
	3	빈도	1	3	8	6	18
		자녀수 중 %	5.6%	16.7%	44.4%	33.3%	100.0%
		걱정수준 중 %	12.5%	1.5%	1.5%	9.0%	2.2%
전체	빈도	8	201	524	67	800	
	자녀수 중 %	1.0%	25.1%	65.5%	8.4%	100.0%	
	걱정수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부모의 걱정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39>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442명(75.2%)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46명(24.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442명(70.3%)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63명(29.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직장인 부모가 전업 부모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높고, 자녀의 외부 활동을 더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 조사 결과

구 분		걱정수준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장인	빈도	5	141	394	48	588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0.9%	24.0%	67.0%	8.2%	100.0%
	걱정수준 중 %	62.5%	70.1%	75.2%	71.6%	73.5%
전업 부·모	빈도	3	60	130	19	212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1.4%	28.3%	61.3%	9.0%	100.0%
	걱정수준 중 %	37.5%	29.9%	24.8%	28.4%	26.5%
전체	빈도	8	201	524	67	800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1.0%	25.1%	65.5%	8.4%	100.0%
	걱정수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부모의 걱정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0>과 같이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59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15명(72.2%)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21명(27.8%)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7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5명(74.4%)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2명(25.5%)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19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5명(78.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4명(21.1%)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6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37명(80.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9명(19.6%)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40명(9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3명(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근로유형별 자녀에 대한 외부 활동 통제는 자영업 근로자(93%), 프리랜서 근로자(80.4%),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78.9%), 파트타임 근로자(74.4%), 풀타임 근로자(7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0>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 조사 결과

구분			걱정수준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근로 유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5	116	284	31	436
		근로 유형 중 %	1.1%	26.7%	65.1%	7.1%	100.0%
		걱정수준 중 %	83.3%	80.6%	71.4%	64.6%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1	11	30	5	47
		근로 유형 중 %	2.1%	23.4%	63.8%	10.6%	100.0%
		걱정수준 중 %	16.7%	7.6%	7.5%	10.4%	7.9%
	일시적 휴직상태	빈도	0	4	10	5	19
		근로 유형 중 %	0.0%	21.1%	52.6%	26.3%	100.0%
		걱정수준 중 %	0.0%	2.8%	2.5%	10.4%	3.2%
	프리랜서	빈도	0	9	35	2	46
		근로 유형 중 %	0.0%	19.6%	76.1%	4.3%	100.0%
		걱정수준 중 %	0.0%	6.2%	8.8%	4.2%	7.7%
	자영업	빈도	0	3	37	3	43
		근로 유형 중 %	0.0%	7.0%	86.0%	7.0%	100.0%
		걱정수준 중 %	0.0%	2.1%	9.3%	6.2%	7.2%
	기타	빈도	0	1	2	2	5
		근로 유형 중 %	0.0%	20.0%	40.0%	40.0%	100.0%
		걱정수준 중 %	0.0%	0.7%	0.5%	4.2%	0.8%
전체	빈도	6	144	398	48	596	
	근로 유형 중 %	1.0%	24.2%	66.8%	8.1%	100.0%	
	걱정수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의 외부 사람(친구, 학습지 교사 등) 제한 여부 분석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의 외부 사람 접촉(친구, 학습지 교사 등)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① 자녀 인원수에 따라 부모의 걱정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584명(73.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216명(27.0%)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인원수와는 별개로 부모 대부분이 부모가 코로나19에 따라 외부 사람 접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아이의 외부 사람(친구, 학습지 교사 등) 제한 여부

구 분		걱정수준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1	112	288	33	434
		자녀수 중 %	0.2%	25.8%	66.4%	7.6%	100.0%
		걱정수준2 중 %	25.0%	52.8%	56.6%	44.0%	54.2%
	2	빈도	2	95	213	38	348
		자녀수 중 %	0.6%	27.3%	61.2%	10.9%	100.0%
		걱정수준2 중 %	50.0%	44.8%	41.8%	50.7%	43.5%
	3	빈도	1	5	8	4	18
		자녀수 중 %	5.6%	27.8%	44.4%	22.2%	100.0%
		걱정수준2 중 %	25.0%	2.4%	1.6%	5.3%	2.2%
전체	빈도	4	212	509	75	800	
	자녀수 중 %	0.5%	26.5%	63.6%	9.4%	100.0%	
	걱정수준2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부모의 걱정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2>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588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419명(71.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165명(28.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과 총 212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165명(77.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47명(22.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전업 부모(77.8%)가 직장인 부모(71.3%)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높고, 자녀의 외부 사람(친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해 통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아이의 외부 사람(친구, 학습지 교사 등) 제한 여부

구 분		걱정수준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장인	빈도	3	166	364	55	588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0.5%	28.2%	61.9%	9.4%	100.0%
	걱정수준 중 %	75.0%	78.3%	71.5%	73.3%	73.5%
전업 부·모	빈도	1	46	145	20	212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0.5%	21.7%	68.4%	9.4%	100.0%
	걱정수준 중 %	25.0%	21.7%	28.5%	26.7%	26.5%
전체	빈도	4	212	509	75	800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0.5%	26.5%	63.6%	9.4%	100.0%
	걱정수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부모의 걱정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3>과 같이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36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306명(70.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130명(29.8%)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7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29명(61.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18명(38.3%)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19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14명(73.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5명(22.3%)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6

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5명(76.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1명(23.9%)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5명(81.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8명(18.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근로유형별 자녀에 대한 외부 활동 통제는 자영업 근로자(81.4%), 프리랜서 근로자(76.1%),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73.7%), 풀타임 근로자(70.2%), 파트타임 근로자(6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3>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아이의 외부 사람(친구, 학습지 교사 등) 제한 여부

구 분		걱정수준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근 로 유 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2	128	271	35	436
		근로 유형 중 %	0.5%	29.4%	62.2%	8.0%	100.0%
		걱정수준 중 %	66.7%	75.7%	73.4%	63.6%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0	18	25	4	47
		근로 유형 중 %	0.0%	38.3%	53.2%	8.5%	100.0%
		걱정수준 중 %	0.0%	10.7%	6.8%	7.3%	7.9%
	일시적 휴직상태	빈도	1	4	14	0	19
		근로 유형 중 %	5.3%	21.1%	73.7%	0.0%	100.0%
		걱정수준 중 %	33.3%	2.4%	3.8%	0.0%	3.2%
	프리랜서	빈도	0	11	28	7	46
		근로 유형 중 %	0.0%	23.9%	60.9%	15.2%	100.0%
		걱정수준 중 %	0.0%	6.5%	7.6%	12.7%	7.7%
	자영업	빈도	0	8	27	8	43
		근로 유형 중 %	0.0%	18.6%	62.8%	18.6%	100.0%
		걱정수준 중 %	0.0%	4.7%	7.3%	14.5%	7.2%
	기타	빈도	0	0	4	1	5
		근로 유형 중 %	0.0%	0.0%	80.0%	20.0%	100.0%
		걱정수준 중 %	0.0%	0.0%	1.1%	1.8%	0.8%
전체	빈도	3	169	369	55	596	
	근로 유형 중 %	0.5%	28.4%	61.9%	9.2%	100.0%	
	걱정수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집안에 외부인 출입 통제 분석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집안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① 자녀 인원수에 따라 부모의 걱정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4>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집안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조사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657명(82.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43명(17.9%)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인원수와는 별개로 부모 대부분이 부모가 코로나19에 따라 집안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 조사 결과

			걱정수준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2	71	286	75	434
		자녀수 중 %	0.5%	16.4%	65.9%	17.3%	100.0%
		걱정수준 중 %	50.0%	51.1%	55.4%	53.2%	54.2%
	2	빈도	1	64	224	59	348
		자녀수 중 %	0.3%	18.4%	64.4%	17.0%	100.0%
		걱정수준 중 %	25.0%	46.0%	43.4%	41.8%	43.5%
	3	빈도	1	4	6	7	18
		자녀수 중 %	5.6%	22.2%	33.3%	38.9%	100.0%
		걱정수준 중 %	25.0%	2.9%	1.2%	5.0%	2.2%
전체	빈도	4	139	516	141	800	
	자녀수 중 %	0.5%	17.4%	64.5%	17.6%	100.0%	
	걱정수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부모의 걱정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5>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집안에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58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478명(81.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10명(18.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212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79명(84.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33명(15.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전업 부모(84.5%)가 직장인 부모(81.3%)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높고, 집안에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 조사 결과

구 분			걱정수준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모의 취업 상태	직장인	빈도	2	108	381	97	588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0.3%	18.4%	64.8%	16.5%	100.0%
		걱정수준 중 %	50.0%	77.7%	73.8%	68.8%	73.5%
	전업 부·모	빈도	2	31	135	44	212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0.9%	14.6%	63.7%	20.8%	100.0%
		걱정수준 중 %	50.0%	22.3%	26.2%	31.2%	26.5%
전체	빈도	4	139	516	141	800	
	귀하의 취업 상태 중 %	0.5%	17.4%	64.5%	17.6%	100.0%	
	걱정수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부모의 걱정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6>과 같이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36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348명(79.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88명(20.2%)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7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41명(87.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6명(12.7%)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19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14명(73.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5명(22.3%)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6

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7명(80.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9명(19.6%)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외부 활동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7명(86.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6명(14.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근로유형별 자녀에 대한 외부 활동 통제는 파트타임 근로자(87.3%), 자영업 근로자(86.1%), 프리랜서 근로자(80.4%), 풀타임 근로자(79.8%),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7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6>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 조사 결과

구 분			걱정수준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근 로 유 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1	87	274	74	436
		근로 유형 중 %	0.2%	20.0%	62.8%	17.0%	100.0%
		걱정수준 중 %	50.0%	77.7%	71.9%	73.3%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0	6	35	6	47
		근로 유형 중 %	0.0%	12.8%	74.5%	12.8%	100.0%
		걱정수준 중 %	0.0%	5.4%	9.2%	5.9%	7.9%
	일시적 휴직상태	빈도	1	4	9	5	19
		근로 유형 중 %	5.3%	21.1%	47.4%	26.3%	100.0%
		걱정수준 중 %	50.0%	3.6%	2.4%	5.0%	3.2%
	프리랜서	빈도	0	9	29	8	46
		근로 유형 중 %	0.0%	19.6%	63.0%	17.4%	100.0%
		걱정수준 중 %	0.0%	8.0%	7.6%	7.9%	7.7%
	자영업	빈도	0	6	31	6	43
		근로 유형 중 %	0.0%	14.0%	72.1%	14.0%	100.0%
		걱정수준 중 %	0.0%	5.4%	8.1%	5.9%	7.2%
	기타	빈도	0	0	3	2	5
		근로 유형 중 %	0.0%	0.0%	60.0%	40.0%	100.0%
		걱정수준 중 %	0.0%	0.0%	0.8%	2.0%	0.8%
	전체	빈도	2	112	381	101	596
		근로 유형 중 %	0.3%	18.8%	63.9%	16.9%	100.0%
		걱정수준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4. 코로나 19 상황으로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가.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

코로나 19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① 자녀 인원수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데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7>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481명(60.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9명(6.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자녀의 경우 총 434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55명(58.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2명(7.4%)으로 나타났다. 2자녀의 경우 총 34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4명(61.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4명(4.0%)으로 나타났다. 3자녀의 경우 총 1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2명(66.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명(16.7%)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의 수에 따라 육체적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자녀(66.7%)와 2자녀(61.4%), 1자녀(58.8%) 순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책에서 자녀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47> 자녀 인원 수에 따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2	30	147	227	28	434
		자녀수 중 %	0.5%	6.9%	33.9%	52.3%	6.5%	100.0%
		스트레스 중 %	33.3%	69.8%	54.4%	54.0%	45.9%	54.2%
	2	빈도	2	12	120	186	28	348
		자녀수 중 %	0.6%	3.4%	34.5%	53.4%	8.0%	100.0%
		스트레스 중 %	33.3%	27.9%	44.4%	44.3%	45.9%	43.5%
	3	빈도	2	1	3	7	5	18
		자녀수 중 %	11.1%	5.6%	16.7%	38.9%	27.8%	100.0%
		스트레스 중 %	33.3%	2.3%	1.1%	1.7%	8.2%	2.2%
전체	빈도	6	43	270	420	61	800	
	자녀수 중 %	0.8%	5.4%	33.8%	52.5%	7.6%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부모의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8>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58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32명(56.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2명(7.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총 212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49명(70.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7명(3.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전업 부모(70.3%)가 직장인 부모(56.5%)보다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책에 있어 부모의 취업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48> 부모 취업상태에 따른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1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취업 상태	직장인	빈도	6	36	214	292	40	588
		취업 상태 중 %	1.0%	6.1%	36.4%	49.7%	6.8%	100.0%
		스트레스1 중 %	100.0%	83.7%	79.3%	69.5%	65.6%	73.5%
	전업 부·모	빈도	0	7	56	128	21	212
		취업 상태 중 %	0.0%	3.3%	26.4%	60.4%	9.9%	100.0%
		스트레스1 중 %	0.0%	16.3%	20.7%	30.5%	34.4%	26.5%
전체	빈도	6	43	270	420	61	800	
	취업 상태 중 %	0.8%	5.4%	33.8%	52.5%	7.6%	100.0%	
	스트레스1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부모의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49>과 같이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38명(54.6%)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5명(8.0%)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47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9명(61.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명(4.3%)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19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4명(73.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명(10.5%)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4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2명(69.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0명(0%)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명(48.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명(7.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근로유형별 부모의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는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73.7%), 프리랜서 근로자(69.5%), 파트타임 근로자(61.7%), 풀타임 근로자(54.6%), 자영업 근로자(4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9> 부모 근로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근 로 유 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5	30	163	212	26	436
		근로 유형 중 %	1.1%	6.9%	37.4%	48.6%	6.0%	100.0%
		스트레스 중 %	83.3%	83.3%	75.1%	71.4%	65.0%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0	2	16	25	4	47
		근로 유형 중 %	0.0%	4.3%	34.0%	53.2%	8.5%	100.0%
		스트레스 중 %	0.0%	5.6%	7.4%	8.4%	10.0%	7.9%
	일시적 휴직	빈도	0	2	3	10	4	19
		근로 유형 중 %	0.0%	10.5%	15.8%	52.6%	21.1%	100.0%
		스트레스 중 %	0.0%	5.6%	1.4%	3.4%	10.0%	3.2%
	프리랜서	빈도	0	0	14	30	2	46
		근로 유형 중 %	0.0%	0.0%	30.4%	65.2%	4.3%	100.0%
		스트레스 중 %	0.0%	0.0%	6.5%	10.1%	5.0%	7.7%
	자영업	빈도	1	2	19	18	3	43
		근로 유형 중 %	2.3%	4.7%	44.2%	41.9%	7.0%	100.0%
		스트레스 중 %	16.7%	5.6%	8.8%	6.1%	7.5%	7.2%
	기타	빈도	0	0	2	2	1	5
		근로 유형 중 %	0.0%	0.0%	40.0%	40.0%	20.0%	100.0%
		스트레스 중 %	0.0%	0.0%	0.9%	0.7%	2.5%	0.8%
전체	빈도	6	36	217	297	40	596	
	근로 유형 중 %	1.0%	6.0%	36.4%	49.8%	6.7%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의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0>과 같이 나타났다.

<표 3-50> 부모 경제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 수준	200만 원 이하	빈도	0	0	2	3	0	5
		경제적 수준 중 %	0.0%	0.0%	40.0%	60.0%	0.0%	100.0%
		스트레스 중 %	0.0%	0.0%	0.7%	0.7%	0.0%	0.6%
	200~299 만 원	빈도	0	2	11	26	4	43
		경제적 수준 중 %	0.0%	4.7%	25.6%	60.5%	9.3%	100.0%
		스트레스 중 %	0.0%	4.7%	4.1%	6.2%	6.6%	5.4%
	300~399 만 원	빈도	0	4	50	94	13	161
		경제적 수준 중 %	0.0%	2.5%	31.1%	58.4%	8.1%	100.0%
		스트레스 중 %	0.0%	9.3%	18.5%	22.4%	21.3%	20.1%
	400~500 만 원	빈도	2	11	76	127	17	233
		경제적 수준 중 %	0.9%	4.7%	32.6%	54.5%	7.3%	100.0%
		스트레스 중 %	33.3%	25.6%	28.1%	30.2%	27.9%	29.1%
	500만 원 이상	빈도	4	26	131	170	27	358
		경제적 수준 중 %	1.1%	7.3%	36.6%	47.5%	7.5%	100.0%
		스트레스 중 %	66.7%	60.5%	48.5%	40.5%	44.3%	44.8%
	전체	빈도	6	43	270	420	61	800
		경제적 수준 중 %	0.8%	5.4%	33.8%	52.5%	7.6%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만 원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명(60.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0명(0.0%)으로 나타났다. 200~2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0명(69.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명(4.7%)으로 나타났다. 300~3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총 161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07명(66.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

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명(2.5%)으로 나타났다. 400~4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총 23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44명(61.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3명(5.6%)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총 35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97명(55.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0명(8.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경제 수준에 따른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는 200~299만 원 근로자 부모(69.8%), 300~399만 원 근로자 부모(66.5%), 400~499만 원 근로자 부모(61.8%), 500만 원 이상 근로자 부모(5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육체적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자녀 보육 및 돌봄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적 시간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여가 생활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① 자녀 인원수에 따라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508명(63.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78명(9.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자녀의 경우 총 434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84명(65.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3명 (9.9%)으로 나타났다. 2자녀의 경우 총 34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1명(60.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2명(9.2%)으로 나타났다. 3자녀의 경우 총 1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3명(72.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명(16.7%)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은 3자녀 (72.2%)와 1자녀(65.4%), 2자녀(60.7%) 순으로 개인 여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1	42	107	228	56	434
		자녀수 중 %	0.2%	9.7%	24.7%	52.5%	12.9%	100.0%
		스트레스 중 %	20.0%	57.5%	50.0%	57.6%	50.0%	54.2%
	2	빈도	2	30	105	162	49	348
		자녀수 중 %	0.6%	8.6%	30.2%	46.6%	14.1%	100.0%
		스트레스 중 %	40.0%	41.1%	49.1%	40.9%	43.8%	43.5%
	3	빈도	2	1	2	6	7	18
		자녀수 중 %	11.1%	5.6%	11.1%	33.3%	38.9%	100.0%
		스트레스 중 %	40.0%	1.4%	0.9%	1.5%	6.2%	2.2%
전체	빈도	5	73	214	396	112	800	
	자녀수 중 %	0.6%	9.1%	26.8%	49.5%	14.0%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부모의 개인 여가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2>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여가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8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43명(58.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73명(12.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여가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212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65명(77.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5명(2.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전업 부모(77.9%)가 직장인 부모(58.4%)보다 개인 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책에 있어 부모의 취업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2>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취업 상태	직장인	빈도	4	69	172	278	65	588
		취업 상태 중 %	0.7%	11.7%	29.3%	47.3%	11.1%	100.0%
		스트레스 중 %	80.0%	94.5%	80.4%	70.2%	58.0%	73.5%
	전업 부·모	빈도	1	4	42	118	47	212
		취업 상태 중 %	0.5%	1.9%	19.8%	55.7%	22.2%	100.0%
		스트레스 중 %	20.0%	5.5%	19.6%	29.8%	42.0%	26.5%
전체	빈도	5	73	214	396	112	800	
	취업 상태 중 %	0.6%	9.1%	26.8%	49.5%	14.0%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부모의 개인 여가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3>과 같이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여가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50명(57.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55명(12.6%)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여가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47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9명(61.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7명(14.9%)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여가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19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7

명(89.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0명(0%)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여가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4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2명(69.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5명(10.9%)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여가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명(48.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5명(11.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근로유형별 부모의 개인 여가 스트레스는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89.4%), 프리랜서 근로자(69.5%), 파트타임 근로자(61.7%), 풀타임 근로자(57.4%), 자영업 근로자(4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3>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근 로 유 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4	51	131	210	40	436
		근로 유형 중 %	0.9%	11.7%	30.0%	48.2%	9.2%	100.0%
		스트레스 중 %	100.0%	73.9%	76.2%	73.7%	60.6%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0	7	11	25	4	47
		근로 유형 중 %	0.0%	14.9%	23.4%	53.2%	8.5%	100.0%
		스트레스 중 %	0.0%	10.1%	6.4%	8.8%	6.1%	7.9%
	일시적 휴직	빈도	0	0	2	10	7	19
		근로 유형 중 %	0.0%	0.0%	10.5%	52.6%	36.8%	100.0%
		스트레스 중 %	0.0%	0.0%	1.2%	3.5%	10.6%	3.2%
	프리랜서	빈도	0	5	9	24	8	46
		근로 유형 중 %	0.0%	10.9%	19.6%	52.2%	17.4%	100.0%
		스트레스 중 %	0.0%	7.2%	5.2%	8.4%	12.1%	7.7%
	자영업	빈도	0	5	17	15	6	43
		근로 유형 중 %	0.0%	11.6%	39.5%	34.9%	14.0%	100.0%
		스트레스 중 %	0.0%	7.2%	9.9%	5.3%	9.1%	7.2%
기타	빈도	0	1	2	1	1	5	
	근로 유형 중 %	0.0%	20.0%	40.0%	20.0%	20.0%	100.0%	
	스트레스 중 %	0.0%	1.4%	1.2%	0.4%	1.5%	0.8%	
전체	빈도	4	69	172	285	66	596	
	근로 유형 중 %	0.7%	11.6%	28.9%	47.8%	11.1%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의 개인 여가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4>과 같이 나타났다.

<표 3-54>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개인 여가 수준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 수준	200만 원 이하	빈도	0	0	1	3	1	5
		경제적 수준 중 %	0.0%	0.0%	20.0%	60.0%	20.0%	100.0%
		스트레스 중 %	0.0%	0.0%	0.5%	0.8%	0.9%	0.6%
	200~299 만 원	빈도	0	5	10	17	11	43
		경제적 수준 중 %	0.0%	11.6%	23.3%	39.5%	25.6%	100.0%
		스트레스 중 %	0.0%	6.8%	4.7%	4.3%	9.8%	5.4%
	300~399 만 원	빈도	1	4	43	85	28	161
		경제적 수준 중 %	0.6%	2.5%	26.7%	52.8%	17.4%	100.0%
		스트레스 중 %	20.0%	5.5%	20.1%	21.5%	25.0%	20.1%
	400~500 만 원	빈도	1	21	58	122	31	233
		경제적 수준 중 %	0.4%	9.0%	24.9%	52.4%	13.3%	100.0%
		스트레스 중 %	20.0%	28.8%	27.1%	30.8%	27.7%	29.1%
	500만 원 이상	빈도	3	43	102	169	41	358
		경제적 수준 중 %	0.8%	12.0%	28.5%	47.2%	11.5%	100.0%
		스트레스 중 %	60.0%	58.9%	47.7%	42.7%	36.6%	44.8%
전체	빈도	5	73	214	396	112	800	
	경제적 수준 중 %	0.6%	9.1%	26.8%	49.5%	14.0%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만 원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여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4명(80.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0명(0.0%)으로 나타났다. 200~2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여가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28명(65.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5명(11.6%)으로 나타났다. 300~3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여가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161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113명(70.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5명(3.1%)으로 나타났다. 400~4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여가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23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53명(65.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2명(9.4%)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여가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35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0명(58.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6명(2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경제 수준에 따른 개인 여가에 따른 스트레스는 200만 원 이하 근로자 부모(80%), 300~399만 원 근로자 부모(70.2%), 400~499만 원 근로자 부모(65.7%), 200~299만 원 근로자 부모(65.1%), 500만 원 이상 근로자 부모(58.7%)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모의 개인 여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자녀 보육 및 돌봄으로 인한 부모의 직장생활 분석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으로 인해 부모의 출근 여건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① 자녀 인원수에 따라 부모의 출근 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5>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육체적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80명(35.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86명(35.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자녀의 경우 총 434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45명(33.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51명(34.8%)으로 나타났다. 2자녀의 경우 총 34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29명(37.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27명(36.5%)으로 나타났다. 3자녀의 경우 총 1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6명(33.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8명(44.4%)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의 출근 여건 수준은 2자녀(37.0%), 3자녀(33.4%), 1자녀(33.4%) 순으로 개인 여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5>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출근 여건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9	142	138	118	27	434
		자녀수 중 %	2.1%	32.7%	31.8%	27.2%	6.2%	100.0%
		스트레스 중 %	29.0%	55.7%	59.0%	51.5%	52.9%	54.2%
	2	빈도	18	109	92	108	21	348
		자녀수 중 %	5.2%	31.3%	26.4%	31.0%	6.0%	100.0%
		스트레스 중 %	58.1%	42.7%	39.3%	47.2%	41.2%	43.5%
	3	빈도	4	4	4	3	3	18
		자녀수 중 %	22.2%	22.2%	22.2%	16.7%	16.7%	100.0%
		스트레스 중 %	12.9%	1.6%	1.7%	1.3%	5.9%	2.2%
전체	빈도	31	255	234	229	51	800	
	자녀수 중 %	3.9%	31.9%	29.2%	28.6%	6.4%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부모의 출근 여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6>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출근 여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8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92명(32.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30명(39.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출근 여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212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88명(41.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56명(26.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전업 부모(41.5%)가 직장인 부모(32.7%)보다 개인 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책에 있어 부모의 취업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6>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모의 출근 여건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취업 상태	직장인	빈도	24	206	166	157	35	588
		취업 상태 중 %	4.1%	35.0%	28.2%	26.7%	6.0%	100.0%
		스트레스 중 %	77.4%	80.8%	70.9%	68.6%	68.6%	73.5%
	전업 부·모	빈도	7	49	68	72	16	212
		취업 상태 중 %	3.3%	23.1%	32.1%	34.0%	7.5%	100.0%
		스트레스 중 %	22.6%	19.2%	29.1%	31.4%	31.4%	26.5%
전체	빈도	31	255	234	229	51	800	
	취업 상태 중 %	3.9%	31.9%	29.2%	28.6%	6.4%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부모의 출근 여건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7>과 같이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출근 여건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18명(27.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93명(44.3%)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출근 여건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7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3명(49.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9명(19.2%)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출근 여건 스트

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19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3명(68.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명(15.8%)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출근 여건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명(45.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3명(28.3%)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출근 여건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9명(44.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1명(25.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근로유형별 부모의 출근 여건 스트레스는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68.4%), 파트타임 근로자(49.0%), 프리랜서 근로자(45.7%), 자영업 근로자(44.2%), 풀타임 근로자(2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7>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출근 여건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근 로 유 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17	176	125	92	26	436
		근로 유형 중 %	3.9%	40.4%	28.7%	21.1%	6.0%	100.0%
		스트레스 중 %	70.8%	84.6%	74.0%	57.5%	74.3%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2	7	15	21	2	47
		근로 유형 중 %	4.3%	14.9%	31.9%	44.7%	4.3%	100.0%
		스트레스 중 %	8.3%	3.4%	8.9%	13.1%	5.7%	7.9%
	일시적 휴직	빈도	2	1	3	11	2	19
		근로 유형 중 %	10.5%	5.3%	15.8%	57.9%	10.5%	100.0%
		스트레스 중 %	8.3%	0.5%	1.8%	6.9%	5.7%	3.2%
	프리랜서	빈도	1	12	12	21	0	46
		근로 유형 중 %	2.2%	26.1%	26.1%	45.7%	0.0%	100.0%
		스트레스 중 %	4.2%	5.8%	7.1%	13.1%	0.0%	7.7%
	자영업	빈도	2	9	13	14	5	43
		근로 유형 중 %	4.7%	20.9%	30.2%	32.6%	11.6%	100.0%
		스트레스 중 %	8.3%	4.3%	7.7%	8.8%	14.3%	7.2%
기타	빈도	0	3	1	1	0	5	
	근로 유형 중 %	0.0%	60.0%	20.0%	20.0%	0.0%	100.0%	
	스트레스 중 %	0.0%	1.4%	0.6%	0.6%	0.0%	0.8%	
전체	빈도	24	208	169	160	35	596	
	근로 유형 중 %	4.0%	34.9%	28.4%	26.8%	5.9%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의 출근 여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8>과 같이 나타났다.

<표 3-58>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의 출근 여건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 수준	200만 원 이하	빈도	1	0	3	1	0	5
		경제적 수준 중 %	20.0%	0.0%	60.0%	20.0%	0.0%	100.0%
		스트레스 중 %	3.2%	0.0%	1.3%	0.4%	0.0%	0.6%
	200~299 만 원	빈도	4	7	13	14	5	43
		경제적 수준 중 %	9.3%	16.3%	30.2%	32.6%	11.6%	100.0%
		스트레스 중 %	12.9%	2.7%	5.6%	6.1%	9.8%	5.4%
	300~399 만 원	빈도	4	39	56	52	10	161
		경제적 수준 중 %	2.5%	24.2%	34.8%	32.3%	6.2%	100.0%
		스트레스 중 %	12.9%	15.3%	23.9%	22.7%	19.6%	20.1%
	400~500 만 원	빈도	5	69	68	76	15	233
		경제적 수준 중 %	2.1%	29.6%	29.2%	32.6%	6.4%	100.0%
		스트레스 중 %	16.1%	27.1%	29.1%	33.2%	29.4%	29.1%
	500만 원 이상	빈도	17	140	94	86	21	358
		경제적 수준 중 %	4.7%	39.1%	26.3%	24.0%	5.9%	100.0%
		스트레스 중 %	54.8%	54.9%	40.2%	37.6%	41.2%	44.8%
전체	빈도	31	255	234	229	51	800	
	경제적 수준 중 %	3.9%	31.9%	29.2%	28.6%	6.4%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만 원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출근 여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명(20.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명(20.0%)으로 나타났다. 200~2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근 여건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9명(44.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1명(25.6%)으로 나타났다. 300~3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근 여건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161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62명(38.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

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43명(26.7%)으로 나타났다. 400~4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근 여건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233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91명(39.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74명(31.7%)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근 여건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358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107명(29.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157명(43.8%)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경제 수준에 따른 출근 여건에 따른 스트레스는 200~299만 원 근로자 부모(44.2%), 400~499만 원 근로자 부모(39.0%), 300~399만 원 근로자 부모(38.5%), 500만 원 이상 근로자 부모(29.9%), 200만 원 이하 근로자 부모(20%) 순으로 나타났다.

라. 자녀 보육 및 돌봄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 생활 분석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으로 인해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① 자녀 인원수에 따라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59>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개인 생활 포기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415명(51.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48명(18.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자녀의 경우 총 434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35명(54.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77명(17.7%)으로 나타났다. 2자녀의 경우 총 34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72명(49.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67명(19.3.5%)으로 나타났다. 3자녀의 경우 총 1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6명(33.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명(22.3%)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 수준은 1자녀(54.1%), 2자녀(49.5%), 3자녀(3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9>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 수준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4	73	122	189	46	434
		자녀수 중 %	0.9%	16.8%	28.1%	43.5%	10.6%	100.0%
		스트레스 중 %	40.0%	52.9%	51.5%	58.9%	48.9%	54.2%
	2	빈도	3	64	109	130	42	348
		자녀수 중 %	0.9%	18.4%	31.3%	37.4%	12.1%	100.0%
		스트레스 중 %	30.0%	46.4%	46.0%	40.5%	44.7%	43.5%
	3	빈도	3	1	6	2	6	18
		자녀수 중 %	16.7%	5.6%	33.3%	11.1%	33.3%	100.0%
		스트레스 중 %	30.0%	0.7%	2.5%	0.6%	6.4%	2.2%
전체	빈도	10	138	237	321	94	800	
	자녀수 중 %	1.2%	17.2%	29.6%	40.1%	11.8%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0>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8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86명(48.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24명(2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212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33명(62.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4명(11.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전업 부모(62.7%)가 직장인 부모(48.0%)보다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책에 있어 부모의 취업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60>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의 개인생활 포기 관련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취업 상태	직장인	빈도	9	115	182	222	60	588
		취업 상태 중 %	1.5%	19.6%	31.0%	37.8%	10.2%	100.0%
		스트레스 중 %	90.0%	83.3%	76.8%	69.2%	63.8%	73.5%
	전업 부·모	빈도	1	23	55	99	34	212
		취업 상태 중 %	0.5%	10.8%	25.9%	46.7%	16.0%	100.0%
		스트레스 중 %	10.0%	16.7%	23.2%	30.8%	36.2%	26.5%
전체	빈도	10	138	237	321	94	800	
	취업 상태 중 %	1.2%	17.2%	29.6%	40.1%	11.8%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1>과 같이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09명(47.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93명(21.3%)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47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명(44.6%)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9명(19.1%)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19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5명(78.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명(10.6%)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4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2명(47.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8명(17.4%)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9명(44.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1명(25.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근로유형별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78.9%), 프리랜서 근로자(47.9%), 자영업 근로자(47.9%), 풀타임 근로자(47.9%), 파트타임 근로자(4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1>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개인생활 포기 관련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4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근 로 유 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7	86	134	168	41	436
		근로 유형 중 %	1.6%	19.7%	30.7%	38.5%	9.4%	100.0%
		스트레스1 중 %	77.8%	73.5%	73.6%	73.7%	68.3%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0	9	17	16	5	47
		근로 유형 중 %	0.0%	19.1%	36.2%	34.0%	10.6%	100.0%
		스트레스1 중 %	0.0%	7.7%	9.3%	7.0%	8.3%	7.9%
	일시적 휴직	빈도	1	1	2	13	2	19
		근로 유형 중 %	5.3%	5.3%	10.5%	68.4%	10.5%	100.0%
		스트레스1 중 %	11.1%	0.9%	1.1%	5.7%	3.3%	3.2%
	프리랜서	빈도	0	8	16	17	5	46
		근로 유형 중 %	0.0%	17.4%	34.8%	37.0%	10.9%	100.0%
		스트레스1 중 %	0.0%	6.8%	8.8%	7.5%	8.3%	7.7%
	자영업	빈도	1	10	13	13	6	43
		근로 유형 중 %	2.3%	23.3%	30.2%	30.2%	14.0%	100.0%
		스트레스1 중 %	11.1%	8.5%	7.1%	5.7%	10.0%	7.2%
	기타	빈도	0	3	0	1	1	5
		근로 유형 중 %	0.0%	60.0%	0.0%	20.0%	20.0%	100.0%
		스트레스1 중 %	0.0%	2.6%	0.0%	0.4%	1.7%	0.8%
전체	빈도	9	117	182	228	60	596	
	근로 유형 중 %	1.5%	19.6%	30.5%	38.3%	10.1%	100.0%	
	스트레스1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의 개인 생활 포기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2>과 같이 나타났다.

<표 3-62>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개인생활 포기 관련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 수준	200만 원 이하	빈도	0	0	2	2	1	5
		경제적 수준 중 %	0.0%	0.0%	40.0%	40.0%	20.0%	100.0%
		스트레스 중 %	0.0%	0.0%	0.8%	0.6%	1.1%	0.6%
	200~299 만 원	빈도	0	8	11	17	7	43
		경제적 수준 중 %	0.0%	18.6%	25.6%	39.5%	16.3%	100.0%
		스트레스 중 %	0.0%	5.8%	4.6%	5.3%	7.4%	5.4%
	300~399 만 원	빈도	1	18	45	76	21	161
		경제적 수준 중 %	0.6%	11.2%	28.0%	47.2%	13.0%	100.0%
		스트레스 중 %	10.0%	13.0%	19.0%	23.7%	22.3%	20.1%
	400~500 만 원	빈도	2	37	74	91	29	233
		경제적 수준 중 %	0.9%	15.9%	31.8%	39.1%	12.4%	100.0%
		스트레스 중 %	20.0%	26.8%	31.2%	28.3%	30.9%	29.1%
500만 원 이상	빈도	7	75	105	135	36	358	
	경제적 수준 중 %	2.0%	20.9%	29.3%	37.7%	10.1%	100.0%	
	스트레스 중 %	70.0%	54.3%	44.3%	42.1%	38.3%	44.8%	
전체	빈도	10	138	237	321	94	800	
	경제적 수준 중 %	1.2%	17.2%	29.6%	40.1%	11.8%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만 원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생활 포기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명(60.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0명(0.0%)으로 나타났다. 200~2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생활 포기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4명(55.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8명(18.6%)으로 나타났다. 300~3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생활 포기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161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97명(50.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19명(17.2%)으로 나타났다. 400~4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생활 포기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233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120명(51.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39명(16.8%)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생활 포기에 따른 수준을 조사결과 총 358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171명(47.8%)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82명(22.9%)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경제 수준에 따른 개인 생활 포기에 따른 스트레스는 200만 원 이하 근로자 부모(60%), 200~299만 원 근로자 부모(55.8%), 400~499만 원 근로자 부모(51.5%), 300~399만 원 근로자 부모(50.2%), 500만 원 이상 근로자 부모(47.8%) 순으로 나타났다.

마.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정보 분석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정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① 자녀 인원수에 따라 부모의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정보를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3>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정보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31명(28.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32명(29.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자녀의 경우 총 434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20명(27.6%)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22명(28.1%)으로 나타났다. 2자녀의 경우 총 34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05명(30.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03명(29.6%)으로 나타났다. 3자녀의 경우 총 1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6명(33.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7명(38.9%)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의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정보 수준은 3자녀(33.3%), 2자녀(30.1%), 1자녀(27.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보육 및 돌봄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자녀의 인원수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표 3-63> 자녀의 인원수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정보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7	115	192	112	8	434
		자녀수 중 %	1.6%	26.5%	44.2%	25.8%	1.8%	100.0%
		스트레스 중 %	36.8%	54.0%	57.0%	54.1%	33.3%	54.2%
	2	빈도	10	93	140	91	14	348
		자녀수 중 %	2.9%	26.7%	40.2%	26.1%	4.0%	100.0%
		스트레스 중 %	52.6%	43.7%	41.5%	44.0%	58.3%	43.5%
	3	빈도	2	5	5	4	2	18
		자녀수 중 %	11.1%	27.8%	27.8%	22.2%	11.1%	100.0%
		스트레스 중 %	10.5%	2.3%	1.5%	1.9%	8.3%	2.2%
전체	빈도	19	213	337	207	24	800	
	자녀수 중 %	2.4%	26.6%	42.1%	25.9%	3.0%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자녀에 대한 보육 및 돌봄 정보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4>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보육 및 돌봄 정보 수준을 조사결과 총 58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71명(29.1%)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78명(30.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 수준을 조사결과 총 212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60명(28.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54명(25.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직장인 부모(29.1%)가 전업 부모(28.3%)보다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정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책에 있어 부모의 취업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64> 부모의 취업 상태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정보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취업 상태	직장인	빈도	14	164	239	153	18	588
		취업 상태 중 %	2.4%	27.9%	40.6%	26.0%	3.1%	100.0%
		스트레스 중 %	73.7%	77.0%	70.9%	73.9%	75.0%	73.5%
	전업 부·모	빈도	5	49	98	54	6	212
		취업 상태 중 %	2.4%	23.1%	46.2%	25.5%	2.8%	100.0%
		스트레스 중 %	26.3%	23.0%	29.1%	26.1%	25.0%	26.5%
전체		빈도	19	213	337	207	24	800
		취업 상태 중 %	2.4%	26.6%	42.1%	25.9%	3.0%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5>과 같이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24명(28.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35명(30.9%)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7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3명(27.6%)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7명(36.1%)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

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19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9명(47.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명(15.8%)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8명(17.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4명(30.5%)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6명(37.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9명(20.9%)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근로유형별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47.4%), 자영업 근로자(37.3%), 풀타임 근로자(28.4%), 파트타임 근로자(27.6%), 프리랜서 근로자(1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시적 휴직상태의 부모 같은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휴직일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줄 필요가 있다.

<표 3-65>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정보 조사 결과

구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근 로 유 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11	124	177	110	14	436
		근로 유형 중 %	2.5%	28.4%	40.6%	25.2%	3.2%	100.0%
		스트레스 중 %	78.6%	74.7%	72.5%	71.4%	77.8%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1	16	17	12	1	47
		근로 유형 중 %	2.1%	34.0%	36.2%	25.5%	2.1%	100.0%
		스트레스 중 %	7.1%	9.6%	7.0%	7.8%	5.6%	7.9%
	일시적 휴직	빈도	0	3	7	9	0	19
		근로 유형 중 %	0.0%	15.8%	36.8%	47.4%	0.0%	100.0%
		스트레스 중 %	0.0%	1.8%	2.9%	5.8%	0.0%	3.2%
	프리랜서	빈도	1	13	24	8	0	46
		근로 유형 중 %	2.2%	28.3%	52.2%	17.4%	0.0%	100.0%
		스트레스 중 %	7.1%	7.8%	9.8%	5.2%	0.0%	7.7%
	자영업	빈도	1	8	18	14	2	43
		근로 유형 중 %	2.3%	18.6%	41.9%	32.6%	4.7%	100.0%
		스트레스 중 %	7.1%	4.8%	7.4%	9.1%	11.1%	7.2%
기타	빈도	0	2	1	1	1	5	
	근로 유형 중 %	0.0%	40.0%	20.0%	20.0%	20.0%	100.0%	
	스트레스 중 %	0.0%	1.2%	0.4%	0.6%	5.6%	0.8%	
전체	빈도	14	166	244	154	18	596	
	근로 유형 중 %	2.3%	27.9%	40.9%	25.8%	3.0%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6>과 같이 나타났다.

<표 3-66>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정보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 수준	200만 원 이하	빈도	0	0	1	3	1	5
		경제적 수준 중 %	0.0%	0.0%	20.0%	60.0%	20.0%	100.0%
		스트레스 중 %	0.0%	0.0%	0.3%	1.4%	4.2%	0.6%
	200~299 만 원	빈도	1	13	16	10	3	43
		경제적 수준 중 %	2.3%	30.2%	37.2%	23.3%	7.0%	100.0%
		스트레스 중 %	5.3%	6.1%	4.7%	4.8%	12.5%	5.4%
	300~399 만 원	빈도	1	35	78	40	7	161
		경제적 수준 중 %	0.6%	21.7%	48.4%	24.8%	4.3%	100.0%
		스트레스 중 %	5.3%	16.4%	23.1%	19.3%	29.2%	20.1%
	400~500 만 원	빈도	3	59	95	68	8	233
		경제적 수준 중 %	1.3%	25.3%	40.8%	29.2%	3.4%	100.0%
		스트레스 중 %	15.8%	27.7%	28.2%	32.9%	33.3%	29.1%
	500만 원 이상	빈도	14	106	147	86	5	358
		경제적 수준 중 %	3.9%	29.6%	41.1%	24.0%	1.4%	100.0%
		스트레스 중 %	73.7%	49.8%	43.6%	41.5%	20.8%	44.8%
전체	빈도	19	213	337	207	24	800	
	경제적 수준 중 %	2.4%	26.6%	42.1%	25.9%	3.0%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만 원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4명(80.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0명(0.0%)으로 나타났다. 200~2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 관련 수준을 조사 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3명(30.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4명(32.5%)으로 나타났다. 300~3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 관련 수준을 조사 결과 총 161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47명(29.1%)으로 나

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6명(22.3%)으로 나타났다. 400~4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 관련 수준을 조사 결과 총 23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76명(32.6%)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62명(26.6%)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 관련 수준을 조사 결과 총 35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91명(25.4%)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20명(33.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경제 수준에 따른 자녀 보육 및 돌봄 정보 관련 스트레스는 200만 원 이하 근로자 부모(80%), 400~499만 원 근로자 부모(32.6%), 200~299만 원 근로자 부모(30.3%), 300~399만 원 근로자 부모(29.1%), 500만 원 이상 근로자 부모(2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육 및 돌봄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육 및 돌봄 서비스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바.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비용 분석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① 자녀 인원수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7>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800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306명(38.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77명(22.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자녀의 경우 총 434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60명(36.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03명(23.8%)으로 나타났다. 2자녀의 경우 총 34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34명(38.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70명(20.1%)으로 나타났다. 3자녀의 경우 총 1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2명(66.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4명(22.2%)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 수준은 3자녀(66.7%), 2자녀(38.5%), 1자녀(36.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 관련 비용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자녀의 경우 1·2자녀에 비해 2배 정도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지원 시 3자녀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3-67> 자녀 인원수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비용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녀 수	1	빈도	5	98	171	145	15	434
		자녀수 중 %	1.2%	22.6%	39.4%	33.4%	3.5%	100.0%
		스트레스 중 %	45.5%	59.0%	53.9%	54.7%	36.6%	54.2%
	2	빈도	4	66	144	111	23	348
		자녀수 중 %	1.1%	19.0%	41.4%	31.9%	6.6%	100.0%
		스트레스 중 %	36.4%	39.8%	45.4%	41.9%	56.1%	43.5%
	3	빈도	2	2	2	9	3	18
		자녀수 중 %	11.1%	11.1%	11.1%	50.0%	16.7%	100.0%
		스트레스 중 %	18.2%	1.2%	0.6%	3.4%	7.3%	2.2%
전체	빈도	11	166	317	265	41	800	
	자녀수 중 %	1.4%	20.8%	39.6%	33.1%	5.1%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자녀에 대한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8>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인 부모를 자녀에 대한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58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6명(36.7%)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41명(24.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212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90명(42.5%)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6명(17.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직장인 부모(36.7%)가 전업 부모(42.5%)보다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비용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취업 상태	직장인	빈도	10	131	231	190	26	588
		취업 상태 중 %	1.7%	22.3%	39.3%	32.3%	4.4%	100.0%
		스트레스 중 %	90.9%	78.9%	72.9%	71.7%	63.4%	73.5%
	전업 부·모	빈도	1	35	86	75	15	212
		취업 상태 중 %	0.5%	16.5%	40.6%	35.4%	7.1%	100.0%
		스트레스 중 %	9.1%	21.1%	27.1%	28.3%	36.6%	26.5%
전체		빈도	11	166	317	265	41	800
		취업 상태 중 %	1.4%	20.8%	39.6%	33.1%	5.1%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69>과 같이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6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54명(35.3%)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07명(23.5%)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7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5명(31.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0명(21.3%)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휴직 상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19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9명(47.4%)으로 나타났

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4명(21.1%)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6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18명(39.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6명(13.0%)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답한 부모가 19명(44.2%)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한 부모가 15명(34.9%)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근로유형별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시적 휴직상태 부모(47.4%), 자영업 근로자(44.2%), 프리랜서 근로자(39.2%), 풀타임 근로자(35.3%), 파트타임 근로자(3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일시적 휴직상태의 부모나 자영업 근로자들이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 지원을 할 때는 재난으로부터 직접 피해받은 인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69> 부모의 근로유형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비용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근 로 유 형	풀타임 근로자	빈도	8	99	175	136	18	436
		근로 유형 중 %	1.8%	22.7%	40.1%	31.2%	4.1%	100.0%
		스트레스 중 %	80.0%	74.4%	73.8%	71.6%	69.2%	73.2%
	파트타임 근로자	빈도	0	10	22	12	3	47
		근로 유형 중 %	0.0%	21.3%	46.8%	25.5%	6.4%	100.0%
		스트레스 중 %	0.0%	7.5%	9.3%	6.3%	11.5%	7.9%
	일시적 휴직	빈도	1	3	6	8	1	19
		근로 유형 중 %	5.3%	15.8%	31.6%	42.1%	5.3%	100.0%
		스트레스 중 %	10.0%	2.3%	2.5%	4.2%	3.8%	3.2%
	프리랜서	빈도	0	6	22	17	1	46
		근로 유형 중 %	0.0%	13.0%	47.8%	37.0%	2.2%	100.0%
		스트레스 중 %	0.0%	4.5%	9.3%	8.9%	3.8%	7.7%
	자영업	빈도	1	14	9	16	3	43
		근로 유형 중 %	2.3%	32.6%	20.9%	37.2%	7.0%	100.0%
		스트레스 중 %	10.0%	10.5%	3.8%	8.4%	11.5%	7.2%
	기타	빈도	0	1	3	1	0	5
		근로 유형 중 %	0.0%	20.0%	60.0%	20.0%	0.0%	100.0%
		스트레스 중 %	0.0%	0.8%	1.3%	0.5%	0.0%	0.8%
전체	빈도	10	133	237	190	26	596	
	근로 유형 중 %	1.7%	22.3%	39.8%	31.9%	4.4%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표 3-70>과 같이 나타났다.

<표 3-70>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보육 및 돌봄 비용 조사 결과

구 분		스트레스					전체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 수준	200만 원 이하	빈도	0	0	1	4	0	5
		경제적 수준 중 %	0.0%	0.0%	20.0%	80.0%	0.0%	100.0%
		스트레스 중 %	0.0%	0.0%	0.3%	1.5%	0.0%	0.6%
	200~299 만 원	빈도	0	13	9	14	7	43
		경제적 수준 중 %	0.0%	30.2%	20.9%	32.6%	16.3%	100.0%
		스트레스 중 %	0.0%	7.8%	2.8%	5.3%	17.1%	5.4%
	300~399 만 원	빈도	0	22	60	68	11	161
		경제적 수준 중 %	0.0%	13.7%	37.3%	42.2%	6.8%	100.0%
		스트레스 중 %	0.0%	13.3%	18.9%	25.7%	26.8%	20.1%
	400~500 만 원	빈도	2	36	99	81	15	233
		경제적 수준 중 %	0.9%	15.5%	42.5%	34.8%	6.4%	100.0%
		스트레스 중 %	18.2%	21.7%	31.2%	30.6%	36.6%	29.1%
	500만 원 이상	빈도	9	95	148	98	8	358
		경제적 수준 중 %	2.5%	26.5%	41.3%	27.4%	2.2%	100.0%
		스트레스 중 %	81.8%	57.2%	46.7%	37.0%	19.5%	44.8%
전체	빈도	11	166	317	265	41	800	
	경제적 수준 중 %	1.4%	20.8%	39.6%	33.1%	5.1%	100.0%	
	스트레스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만 원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결과 총 5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4명(80.0%)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0명(0.0%)으로 나타났다. 200~2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수준을 조사결과 총 4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21명(48.9%)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3명(30.2%)으로 나타났다. 300~3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수준을 조사결과 총 161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79명(49.0%)으로 나

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22명(13.7%)으로 나타났다. 400~499만 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수준을 조사 결과 총 233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86명(41.2%)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38명(16.4%)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수준을 조사 결과 총 358명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06명(29.6%)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부모가 104명(29.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경제 수준에 따른 자녀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는 200만 원 이하 근로자 부모(80%), 300~399만 원 근로자 부모(49.0%), 200~299만 원 근로자 부모(48.9%), 400~499만 원 근로자 부모(41.2%), 500만 원 이상 근로자 부모(29.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육 및 돌봄 비용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육 및 돌봄 서비스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5. 질 높은 유치원,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 분석 결과

가.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수요조사 분석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다음 <표 3-71>과 같이 나타났다. <표 3-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은 첫 번째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요건 충족이 제일 높게 나왔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재료 및 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71> 물리적 환경 수요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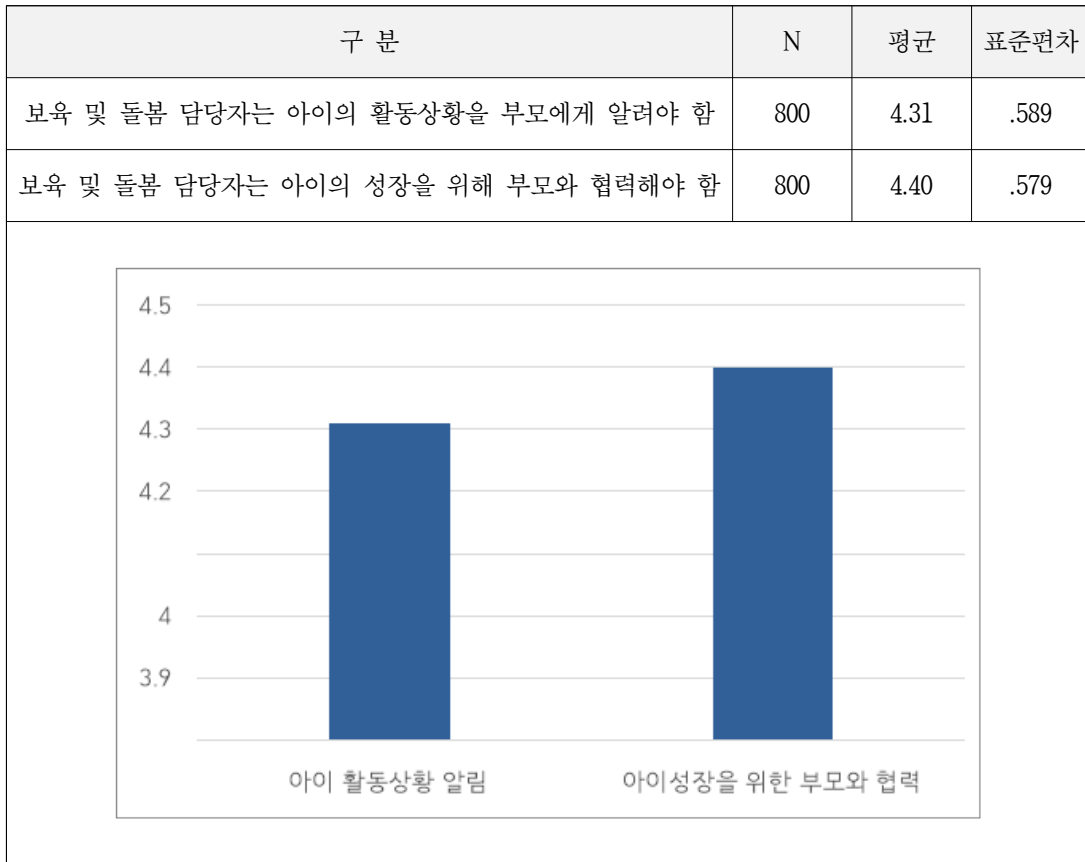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충분한 공간의 필요성	800	4.20	.597
다양한 학습재료 및 기자재 확보	800	4.17	.597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요건 충족	800	4.40	.568

구 분	평균
충분한 공간	4.20
다양한 학습재료 및 기자재 확보	4.17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요건 충족	4.40

나.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인간적 환경 수요조사 분석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인간적 환경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다음 <표 3-72>과 같이 나타났다. <표 3-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인간적 환경 개선은 첫 번째가 ‘보육 및 돌봄 담당자는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른 담당자나 부모와 협력을 해야 한다’ 이며, 두 번째는 ‘보육 및 돌봄 담당자는 알림장 등을 통해 아이의 활동상황에 대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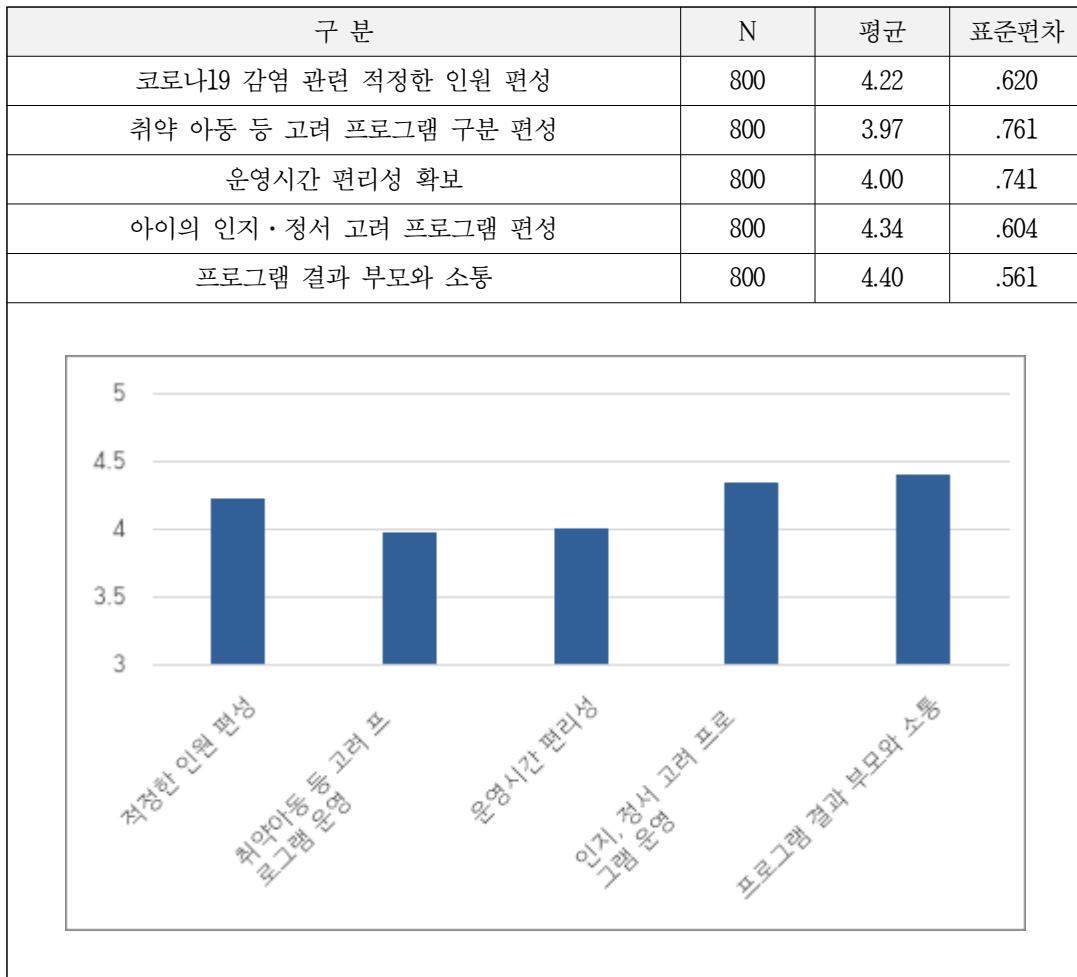
<표 3-72>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기관의 인간적 환경 수요조사 분석 결과



다.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조사 분석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다음<표 3-70>과 같이 나타났다. <표 3-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은 첫 번째가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와 소통하여 아이의 돌봄의 질 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이며, 두 번째는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로 나왔다. 세 번째는 ‘교사와 아이의 숫자는 감염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이며, 네 번째는 ‘학부모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결정해야 한다’이고, 다섯 번째는 일반아동,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지원해야 한다’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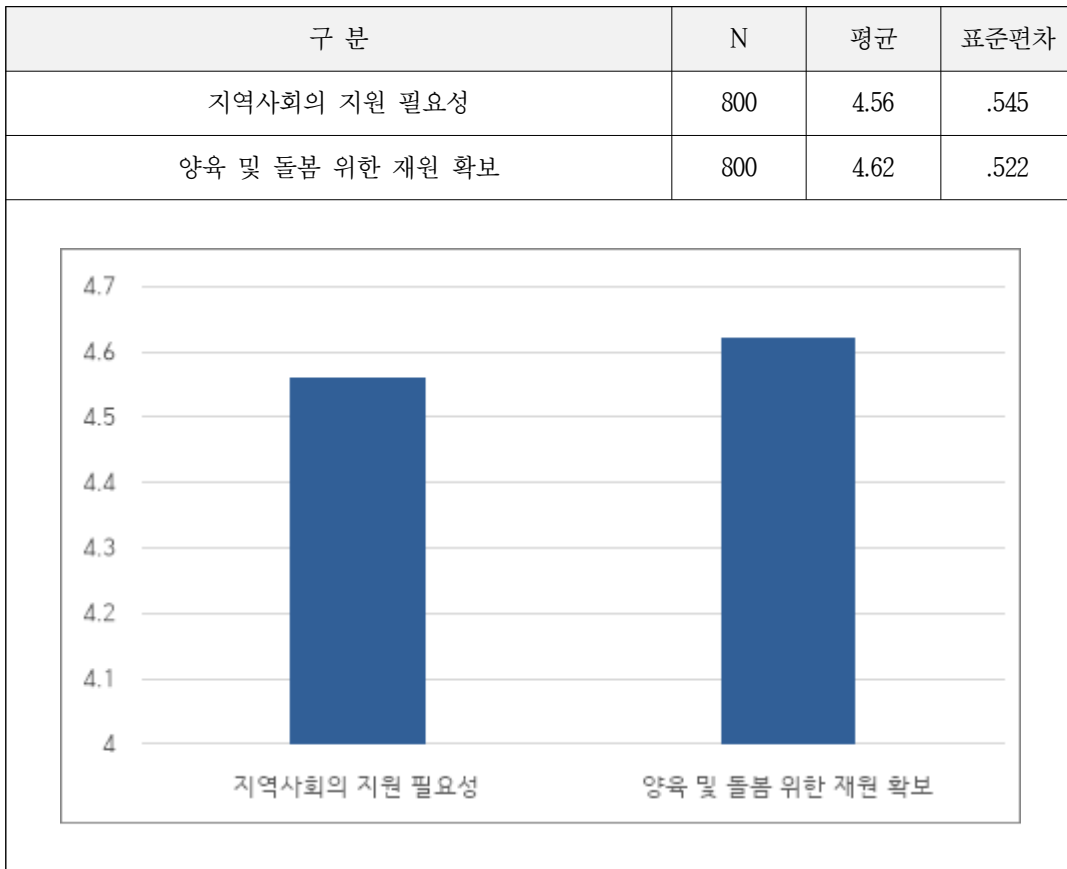
<표 3-73> 보육 및 돌봄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 관련 조사 결과



라.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조직환경 수요조사 분석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조직 환경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다음<표 3-71>과 같이 나타났다. <표 3-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조직 환경 개선은 첫 번째가 ‘양육 및 아동돌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며,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양육 및 아동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로 나왔다.

<표 3-74>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조직 환경 관련 조사 결과



IV. 결 론

본 조사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서울시민의 보육 및 아동 돌봄 공백 및 지원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성인 남녀 800명을 방문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2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하여 지원서비스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자녀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다. 설문조사된 800명의 부모 중 1자녀를 둔 부모는 434명(54.3%), 2자녀를 둔 부모는 348명(43.5%), 3자녀를 둔 부모는 18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된 자녀의 연령대는 총 자녀 1,147명 중 만 3세 미만 자녀가 111명(9.7%), 만 3세 자녀가 176명(15.3%), 만 4세 자녀가 190명(16.6%), 만 5세 자녀가 196명(17.1%), 만 6세 자녀가 112명(9.8%), 만 7세 자녀가 95명(8.3%), 만 8세 자녀가 123명(10.7%), 만 9세 자녀가 76명(6.6%), 만 10세 이상 자녀가 68명(5.9%)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자녀가 다니던 기관은 어린이집이 458명(36.3%)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초등학교 262명(20.8%), 학원 260명(20.6%), 유치원 220명(17.5%), 지역아동센터 8명(0.6%), 키움센터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에 대해 이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부모가 432명(54%)이고 이용한 부모가 367명(45.9%)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부모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다. 설문조사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직장인이 588명(73.5%)이고 전업 부모가 212명(26.5%)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대상자의 근로유형을 확인한 결과, 풀타임 근로자가 436명(54.5%), 파트타임 근로자 47명(5.9%), 프리랜서가 46명(5.8%), 자영업이 43명(5.4%), 일시적 휴직 상태가 19명(2.4%)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500만 원 이상이 358명(4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400~500만 원이 233명(29.1%), 300~400만 원이 161명(20.1%), 200~300만 원이 43명(5.4%), 200만 원 이하가 5명(0.6%)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발생 이후 가정생활의 변화를 묻는 답변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발생했다’ 고한 부모가 698명(87.3%)이고, ‘변화가 없다’ 는 부모는 102명(12.8%)으로 나타났으며, 변화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 부담

증가가 391명(48.9%), 가사노동 증가가 175명(21.9%), 양육비용 증가가 78명(9.8%), 우울감이 50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결과를 기초로 향후 자녀 보육 및 돌봄 정책을 위한 제언이다. ① 설문한 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의 운영 문제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아동 보육 및 돌봄 기관의 방역체계 구축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②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와 야외 신체활동 부재로 인한 과잉 행동, 불규칙한 생활 리듬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 및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코로나19에 따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들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우울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보육 및 돌봄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부모들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④ 코로나19가 발생에 따라 어머니와 조부모의 양육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부모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보육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코로나19에 따라 자녀 보육 및 돌봄 기관의 문제점과 코로나19 감염우려에 따른 심리적 두려움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게 보육 및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부모들이 기관을 신뢰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⑤ 3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1, 2자녀를 둔 부모보다 양육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하였고, 자영업자 또한 양육비용에 부담을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보육 및 돌봄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무료 보육 및 돌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⑥ 대부분의 부모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녀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육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

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육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자녀의 인원수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⑦ 부모가 풀타임의 근로자의 경우 조부모 등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해 긴급 돌봄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나 자영업을 하는 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급 돌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지원할 때 부모의 근로유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⑧ ‘질 높은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기관(유치원, 키움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에 대해 수요조사 결과,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요건 충족이 제일 높게 나왔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재료 및 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인간적 환경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보육 및 돌봄 담당자는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른 담당자나 부모와 협력을 해야 한다’이며, 두 번째는 ‘보육 및 돌봄 담당자는 알림장 등을 통해 아이의 활동상황에 대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로 나왔다.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와 소통하여 아이의 돌봄의 질 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이며, 두 번째는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로 나왔다. 세 번째는 ‘교사와 아이의 숫자는 감염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이며, 네 번째는 ‘학부모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결정해야 한다’이고, 다섯 번째는 일반아동,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지원해야 한다’로 나타났다. 자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조직환경에 대해 수요조사 결과, 첫 번째가 ‘양육 및 아동돌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이며,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양육 및 아동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로 나왔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21),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 교육부 보도자료(20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 교육부 보도자료(2021.1.19.),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교육부 보도자료(2020.2.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부 보도자료(2020.3.4.), 보육료·양육수당·육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 교육부 보도자료(2020.3.12.), 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 결과.
- 교육부 보도자료(2020.8.27.),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0.9.2.),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교육부 보도자료(2020.9.24.),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교육부 보도자료(2020.12.7.), 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간담회 진행 및 정부와 여당 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
- 교육부 보도자료(2020.12.23.),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교육부 보도자료(2021.8.4.),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 배은정(2020),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현정(2021),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자녀 양육 관련 변인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139호).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072호).
- 손연희(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경험하는 돌봄의 의미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17283호).
-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17539호).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00163호).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8217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14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788호).
- 정영모(2016), 초등돌봄교실 질 진단도구 개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소연(2020), 취학 전 아동 아이돌보미의 돌봄 서비스 질 관련 요인, 경희대학교 간 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시사점, 국제사 회보장리뷰, 13, pp. 47-59.
- 주해란·한아름(2021), 코로나19기간 동안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가 어 머니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1), pp. 209-227.
- 최순자(2021), 일본 후생노동성 코로나19 지침과 영유아교육기관 대응 사례, 한국일 본교육학연구, 26(1), pp. 27-42.
- 최윤경(2020), 코로나19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점검 및 현황 분석, 육아정책포 럼, pp. 6-19.
- 최진아(2016), 초등돌봄교실 자체평가지표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최청락·김혜정·문정희·박금식·이진숙(2020),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 야 대응전략,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pp. 1-65.
- 황니나(2021),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분석, 마이너리티연구, 4(2), pp. 49-65.

설문지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 돌봄 공백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서울시의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 돌봄 공백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보육 및 아동 돌봄 정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설문이기 때문에 성실성의껏 작성해 주시면 자녀 양육에 적절한 지원을 위한 실천적 방안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본 설문지의 내용은 아래 관련 근거에 의거 연구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제6조(비밀유지)
3. 통계법 제27조(통계작성, 공표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제33조(비밀의 보호)

<설문작성 방법>

1.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께서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정확한 연구 분석을 위하여 모든 문항에 대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자녀와 관련된 일반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자녀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2. 해당 자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① 만 3세 미만 ② 만 3세 ③ 만 4세 ④ 만 5세 ⑤ 만 6세
⑥ 만 7세 ⑦ 만 8세 ⑧ 만 9세 ⑨ 만 10세 이상

3. 자녀의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 특별한 양육·보육이 필요한가요?

- ① 예 ② 아니요

3-1. (3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어떠한 유형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 ① 장애아동 ② 다문화

4. (복수응답) 코로나19 이전에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유치원 ② 어린이 집 ③ 초등학교 ④ 키움센터
⑤ 지역아동센터 ⑥ 학원 ⑦ 다니는 기관 없음(가정양육)

5.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관 이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변화 없음 ② 기관 종류 변화 ③ 동일 기관 내 보육 및
교육시간의 변경 ④ 가정양육으로 돌아옴 ⑤ 기타()

6.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격상 이후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평균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① 해당 없음 ② 주 1~2회 ③ 주 3~4회 ④ 주 5회 이상

7.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어린이집 등)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긴급보육·돌봄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이용하지 않음 ② 이용함

7-1. (7번 문항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긴급보육 이용 시 자녀는 하루 중 돌봄·양육(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4시간 미만 ②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③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④ 8시간 이상

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가 보이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8. 코로나19 이후에 낮 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사
 ④ 조부모 ⑤ 친인척 ⑥ 육아 도우미(예: 아이 돌보미, 가사 도우미 등)
9.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주위에는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10.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거나 적응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배우자와의 공동육아 증가 ② 조부모의 지원 ③ 긴급 돌봄
 ④ 기타 주변 사람의 지원 ⑤ 없음 ⑥ 기타

III.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걱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의 외부 활동(놀이터, 학원 등)을 제한하십니까?	①	②	③	④
2.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의 외부 사람 접촉(친구, 학습지 교사 등)을 제한하십니까?	①	②	③	④
3.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집안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십니까?	①	②	③	④

IV.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 돌봄으로 인해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를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출근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 돌봄으로 인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요즘 보육 및 돌봄 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보육 및 아동돌봄 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V. '질 높은 보육 및 돌봄을 위한 유치원,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운용을 위한 수요조사입니다.

1.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재료 및 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인간적 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보육 및 돌봄 담당자는 알림장 등을 통해 아이의 활동상황에 대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보육 및 돌봄 담당자는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른 담당자나 부모와 협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교사와 아이의 숫자는 감염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일반아동,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와 소통하여 아이의 돌봄의 질 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조직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양육 및 아동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양육 및 아동돌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시의회

